

2022 Asia Cultural Diversity International Forum

2022.09.30.(금)
14:00

한성1918 부산생활문화센터



2022 문화공유 네트워크
“다함께, 가까이, 늘”

2022 Asia Cultural Diversity International Forum



일정

14:00-14:30		Opening
개회사 Opening speech		이미연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Lee MiYeon (Managing Director of Busan Cultural Foundation)
14:30-16:20		Session 예술을 통해 연결의 힘으로 고립과 단절을 뛰어넘는 사회
진행 Moderator		서상호 (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본부장) Seo SangHo (Director of Busan Cultural Foundation Living Culture Division)
주제발표 Key Note	14:30	<룸붕과 문화다양성> <Lumbung cultural diversity> 아데 다르마완 (인도네시아, 예술공동체 루앙루파 대표, 카셀 도큐멘타 총감독) Ade Darmawan (Indonesia, Director of art collective ruangrup, Documenta Kassel)
	15:00	<자연과의 친밀감과 문화다양성> <Intimacy with Nature and cultural diversity> 헨리 탄 (태국, 방콕복합문화공간 텐타클 공동 설립자, 프리크랩 멤버) Henry Tan (Thailand, co-founder of Tentacles Art Space, member of Freaklab)
	15:50	<코가네초바자> <The Koganecho Bazaar> 야마노 신고 (일본, 코가네초 에어리 매니지먼트 센터 대표) Shingo Yamano (Japan, Koganecho Area Management Representative)
16:20-17:00		Q&A, Discussion
진행 Moderator		서상호 (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본부장) Seo SangHo (Director of Busan Cultural Foundation Living Culture Division)
질의응답 및 토론 Q&A, Discussion		헨리 탄 (태국, 방콕복합문화공간 텐타클 공동 설립자, 프리크랩 멤버) Henry Tan(Thailand, co-founder of Tentacles Art Space, member of Freaklab 야마노 신고 (일본, 코가네초 에어리 매니지먼트 센터 대표) Shingo Yamano (Japan, Koganecho Area Management Representative) 이지혜 (한국, 문화매개실천연구소 대표) Lee JiHye (Korea, Institute of Cultural Mediated Practice Representative)
17:00-17:30		Closing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문화콘텐츠>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Culture Content> 오재환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Oh JaeHwan (Senior researcher of Busan Development Institute)

목차

아시아 문화다양성 국제포럼		8
인도네시아	룸봉과 문화다양성	10
태국	자연과의 친밀감과 문화다양성	11
일본	코가네초바자	38



아시아 문화다양성 국제포럼

Asia
Cultural Diversity
International Forum

인도네시아

Lumbung cultural diversity

룸붕과 문화다양성

인도네시아 룸붕(Lumbung)을 통한 공동체 실험

룸붕(Lumbung)은 인도네시아어로 잉여 수확물을 지역 사회의 이익을 위해 저장하는 공동 쌀 헛간을 말한다. 아이디어, 이야기, 시간 및 공유 가능한 자원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 이를 활용하여 시민과의 협업을 진행하고, 형식적 제약이 없는 혁신적 예술을 탐색해간다. 예술과 행동주의가 만나는 공간으로서 룸붕을 통하여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예술이 주변 공동체와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으로서의 도전, 룸붕이 대안 경제로서의 역할을 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만드는 실험을 소개한다.



아데 다르마완
(인도네시아, 예술공동체 루앙루파 대표, 카셀
도큐멘타 총감독)
Ade Darmawan
(Indonesia, Director of art collective
ruangrupu, Documenta Kassel)

Lumbung cultural diversity

Lumbung: a collective resource pot operating under the logics of commons; an agglomeration of ideas, stories, time and other shareable resources. Metaphorically, this modest living room welcomes citizens to participate in building up resources from the ground, and thereby to own the space themselves. It should be able to become a new space, formed by the intersections of elements, yet without absorbing (and therefore eliminating) them. It is an exploratory space for innovations, yet without institutional or formal restrictions. Interdisciplinarity is key here. It is where art meets activism. It is a place for management and networking, for gathering support, for reading and for identifying local resources. The created actions and spaces intertwine with social relations and transactions. They slowly grow and eventually become public in society. The space encapsulates a strategy for “living in and with society.” It imagines the relations of an art institution with and within its surrounding community: namely, as an active constituent. Here strategies are developed based on proximity and common endeavour. Is this model scalable?

인도네시아 룸붕(Lumbung)과 문화다양성

룸붕(Lumbung)은 인도네시아어로 잉여 수확물을 지역 사회의 이익을 위해 저장하는 공동 쌀 헛간을 뜻한다. 아이디어, 이야기, 시간 및 공유 가능한 자원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 ‘수수한 거실과도 같은 공간’의 역할을 하며 시민들이 자원을 쌓고, 공간을 스스로 소유하고 참여하도록 한다. 이를 활용하여 시민과의 협업을 진행하고, 형식적 제약이 없는 혁신적 예술을 탐색해간다. 이는 여러 학문의 분야를 넘나든다. 예술과 행동주의가 만나는 공간으로서 룸붕을 통하여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룸붕은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전략 그 자체다. 예술이 주변 공동체와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으로서의 도전, 룸붕이 대안 경제로서의 역할을 하며 공동체의 전략적 가치를 만드는 모델을 소개한다. 이 모델은 확장 가능한가?

태국

Intimacy with Nature and cultural diversity

자연과의 친밀감과 문화다양성

자연과의 친밀감은 인간의 문명이 생물 다양성과 기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변화하는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 생태학적 체계를 탐구한다. 잃어버린 자연을 보호하고 복원하거나 미래의 자연을 창조하는 데 생명공학, 생명과학, 현대미술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연과의 친밀함은 지식과 창조를 공유하기 위한 거주, 작업장 및 공동체의 틀이다.



헨리 탄
(태국, 방콕복합문화공간 텐타클 공동 설립자,
프리크랩 멤버)
Henry Tan
(Thailand, co-founder of Tentacles Art
Space, member of Freaklab)

My name is Henry Tan I am an artist base in Bangkok, co-founder of Tentacles Art Space, member of Freaklab, Thailand and metaPhorest, Japan.

제 이름은 Henry Tan입니다. 방콕에 있는 예술가 기지로, Tentacles Art Space의 공동 설립자이자 태국 Freaklab의 멤버이자 일본 meta Forest입니다.

I will share my activity as a community organiser. Let 's go back to 2012. I had a chance to join a residency program in Busan with OPENSOURCE BAE in Gijang Area. It was my first time to spend time with international artists, learn about their practices and create works and exhibition. After returning to Thailand, I have ambition to create a similar platform and, in 2014 my colleagues and I started Tentacles Art Space. We have a residency program, exhibition space, film screening, reading group, and workshop. Tentacles became a connecting point for international and local art practitioners to meet, share knowledge and create art. After six years, though lacking local funding we hosted almost hundreds of artists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art people at our residency, several exchange programs with Art space and institutions in Taiwan Malaysia Korea Austria Japan and more, we have ongoing exhibitions. As Art space We grow parallel with our friends in south East Asia.

커뮤니티 주최자로서 저의 활동을 공유하겠습니다. 2012년으로 돌아갑시다. 부산 기장 지역에서 OPENSOURCE BAE와 함께 부산에서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예술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관행에 대해 배우고, 작품과 전시회를 만드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비슷한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으며, 2014년에 동료들과 함께 ‘촉수’ 아트 스페이스(Tentacles Art Space)를 시작했습니다. 레지던트 프로그램, 전시 공간, 영화 상영, 독서회, 워크숍이 있습니다. 촉수는 국제와 지역 예술 실무자들이 만나 지식을 나누고 예술을 창조하는 연결점이 되었습니다. 6년 후, 비록 현지 자금이 부족했지만, 우리는 거주지에서 거의 수백 명의 국내외 예술인들을 초대했고, 대만 말레이시아 한국 오스트리아 일본 등의 예술 공간 및 기관과 여러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현재 진행 중인 전시회가 있습니다. 예술공간으로서 우리는 동남아시아의 친구들과 평행을 이루며 성장합니다.

태국의 기후 및 건강 위기와 정치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With the emergence of Climate and Health crisis and political problem in Thailand, the many of my friends face mental health challenge, i began to explore and research about health and art, I tried to expand the knowledge territory into other disciplines, I joined Freaklab as a member in 2018. Freaklab is located at King Mongkut Institute of Technology near Bangkok, Freaklab is a network of people who’s interested in both natural sciences and art, I met with Biologist, Engineer, Chemist, Physicist and more, this had widen the conversation and topic not limited only to the contemporary art but discussion about our contemporary society using art and science as a tool to explore, experiment and elaborate our discovery and address social problem

In 2020 before covid start I went to do a research about BioArt in Japan, and join as a member with metaPhorest with Professor Hideo Iwasaki at Waseda University, metaPhorest was founded in 2008. It is a platform for discussion about BioAesthetic and Life Science and contemporary art practices, A place for art and science intertwined.

There are many institutions in Japan that are considering the concept of life sciences in contemporary art direction. Such as ycam yamaguchi center for art and media, Kyushu design University that provide a Biolab for design students. Fablab Hamamatsu, which is the maker community space, also has a biolab facility. The growing network of community lab a place for people to do diyBio or BioArt. I believe that the future of community space and art space will merge. We will create artwork by modifying Dna of living creatures. We can create smells that disappear. We can create meat from endangered animals in the lab so we don’t have to kill them. We can Engineer yeast to produce the flavor that we want.

Last year I was invited by the Singapore Art Museum to join exsitu residency project. I want to create a multi-country residency program. Our program Intimacy with Nature 1.0 is an international bioart residency program in Thailand and Singapore. Our goal is to discuss topics that related to life and nature by understand the epistemology, philosophy and the technology that stifling our human and non human life.

많은 친구들이 정신 건강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저는 건강과 예술에 대해 탐구하고 연구하기 시작했고, 저는 다른 분야로 지식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고, 2018년에 Freaklab에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Freaklab은 King Mongkut Institute of Techno에 있습니다.방콕 근교의 기술 분야의 기관인 Freaklab은 자연과학과 예술 모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저는 생물학자, 엔지니어, 화학자, 물리학자 등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현대 예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술과 과학을 탐험, 실험, 그리고 도구로서 사용하는 현대 사회에 대한 대화와 주제를 넓혔습니다. 우리의 발견을 자세히 설명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합니다.

코로나 시작 전 2020년 일본 바이오아트에 대한 연구를 하러 갔다가 와세다 대학의 이와사키 히데오 교수와 함께 메타포레스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2008년에 메타포레스트가 설립되었습니다. 생명미학과 생명과학, 현대미술 실천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예술과 과학의 장이 섞여 있습니다.

디자인 전공 학생들에게 바이오랩을 제공하는 큐슈 디자인 대학, 예술 및 미디어 센터와 같은 ycamyamaguchi 센터입니다. 메이커 커뮤니티 공간인 파브랩 하마마츠에도 바이오랩 시설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랩의 네트워크는 사람들이 DIY(do it yourself) Bio나 Bio Art를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저는 커뮤니티 공간과 예술 공간의 미래가 융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생물들의 DNA를 수정하여 예술 작품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냄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험실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로부터 고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맛을 내기 위해 효모균(이스트)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싱가포르 미술관의 초청을 받아 국외 거주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다국적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의 프로그램인 자연과의 친밀감 1.0은 태국과 싱가포르의 국제 바이오아트 레지던트 프로그램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인간과 비인간적인 삶을 억압하는 인식론, 철학, 기술을 이해함으로써 삶과 자연과 관련된 주제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1부에서는 Pakpoom 교수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레수안대학교 의학과와 협력했습니다. 합성생물학 전문가인 Pakpoom 교수입니다. 그는 예술가들이 생명 공학 도구를 탐험할 수 있도록 그의 연구실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술가를 물리학,

In The first part we co host our program with Prof Pakpoom and collaborated with the medical science department at Naresuan University. Prof Pakpoom who is an expert in synthetic biology. He opened his lab for artists to explore biotechnology tools. And also connect artists with university professor who are experts in other area such as physics, herbalist, Rice experts, child psychology, smell analyst, crispr expert, local chef. We also had a public workshop for anyone interested in Bio and Art come together to explore and meet. We had 50 participants from all over Thailand. Some friends from Singapore and Japan also joined us during the 6 days Workshop.

The first part is finished and the second part will be in the Singapore Art Museum in March 2023. Hope we can have Korean artists join us.

To summarize my practice as an artist, it’s as important to help create space where people can meet to learn and exchange from running a tentacles art residency to freaklab, and metaPhorest. To act as an educator, connector and enabler. For the community to rethink and learn the known and unknown together, to have empathy for all human and non human beings.

Thank you.

Henry

약초학자, 쌀 전문가, 아동 심리학, 후각 분석가, 크리스퍼(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 세균과 같은 원핵생물 유기체의 게놈에서 발견되는 DNA 서열) 전문가, 지역 요리사와 같은 다른 분야의 전문가인 대학 교수와 연결합니다. 또한 바이오와 아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탐방하고 만날 수 있는 공개 워크숍도 열었습니다. 태국 전역에서 온 50명의 참가자들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와 일본에서 온 몇몇 친구들도 6일 워크숍에 참가했습니다.

1부는 완성되었고 2부는 2023년 3월에 싱가포르 미술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 아티스트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제 실천을 요약하자면 촉수 예술 레지던시를 운영하는 것부터 괴짜 랩까지, 그리고 메타포레스트까지 사람들이 만나서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자, 연결자 및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공동체가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을 함께 재고하고 배우고, 모든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오에스테틱: 자연과의 친밀감

헨리 탄



자연과의 친밀함은 인간의 문명이 생물다양성과 기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키는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생태계를 탐구합니다. 잃어버린 자연을 보호하고 복원하거나 미래의 자연을 창조하는데 생명공학, 생명과학, 현대 미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자연과의 친밀함은 지식과 창조를 공유하기 위한 레지던시, 워크숍 및 커뮤니티를 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Henry Tan은 예술과 과학을 통해 바이오 미학을 추구하고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여정을 공유할 것입니다.

자연 비인간 기후 사회 미술 기술

Naraphat Sakarthornsap (Ball)

방콕, 태국

꽃은 내 감정과 기억에서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유일한 것입니다. 꽃을 통해 나는 나의 성 정체성에 대해 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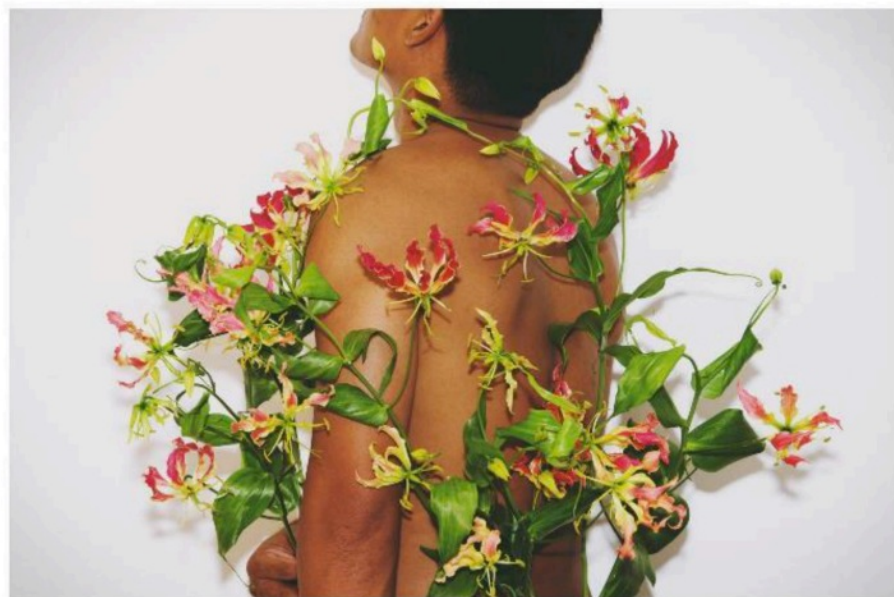
15. 07. 2015

End of my story.



09. 01. 2015

sex,



01. 05. 2014

I've been hiding myself from others. But



13. 05.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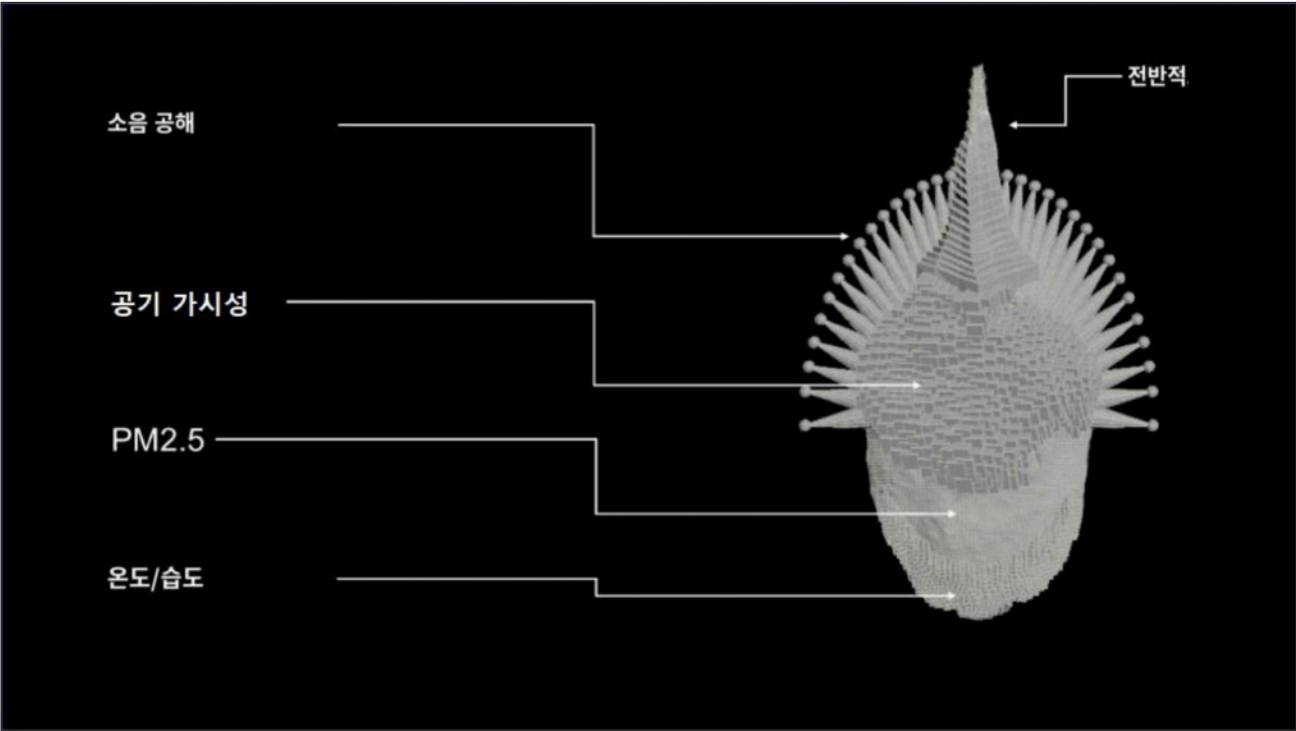
I use the first letter to show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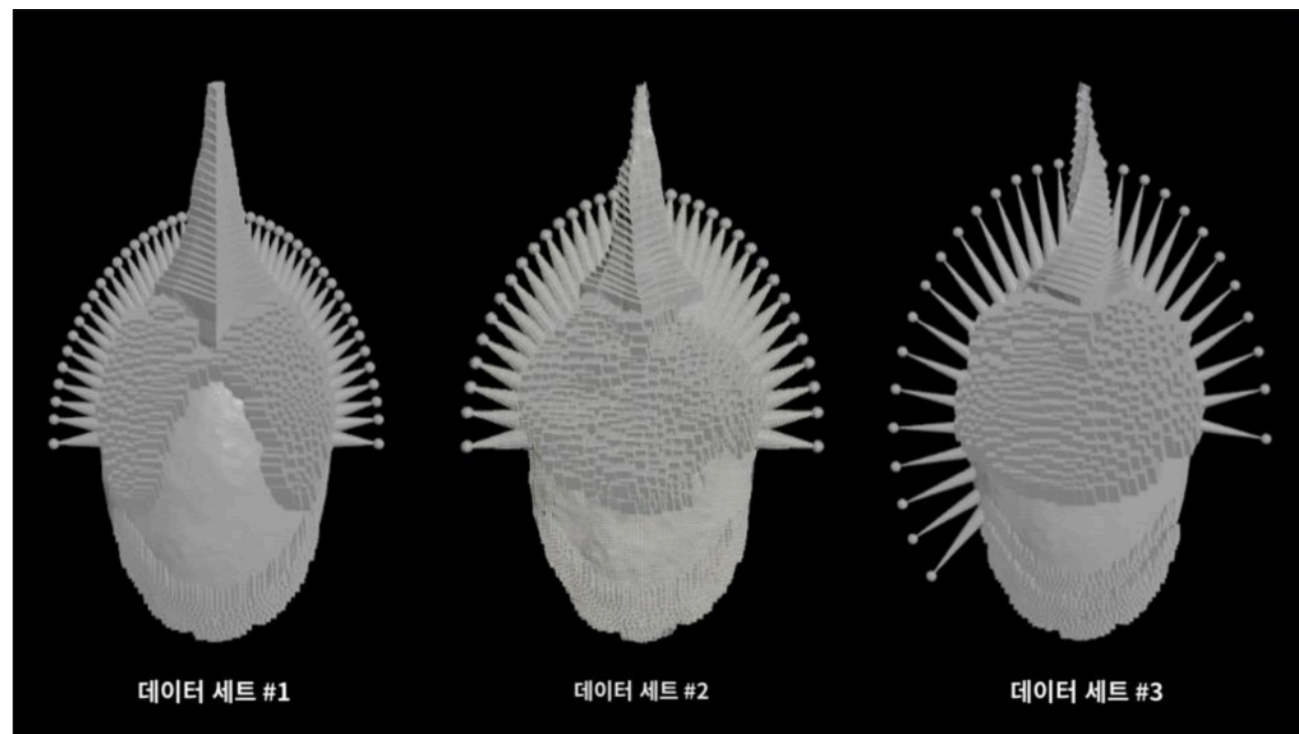




Wave Pongruengkiat

치앙마이, 태국





Weed Day

타이페이, 대만









집에서 만든 잡초차

현대 수렵의 방식

당대의 제철은 영속적인 생활의 계기였다. 천재로 돌아와 다시 인간과 땅의 심수계로 세웠다. 이 땅들은 자못 좋게 야생한다. 야생화, 초목, 관상식물, 참말기, 산나물, 잡엽식물, 독성식물 등이 있지만 생태계 서비스 기술도 가지고 있어 세부적인 피카도, 공기 정화, 토양 및 토양 보존을 돕고 생물다양성을 제공하여 생물 다양성을 향상합니다. 왜곡적인 '야생'을 통하여 자연의 생태적 특성과 환경 발달을 보호하고, 환경 정화를 촉진하며, 무관한 인식과 관찰, 제한된 탐구로 인간과 자연 환경의 공존과 필요를 강조한다

잡초는 인류의 생활에 가장 가까운 야생식물이다. 물론, 가장 몸에 꼭 맞는 양 소식을 가지고 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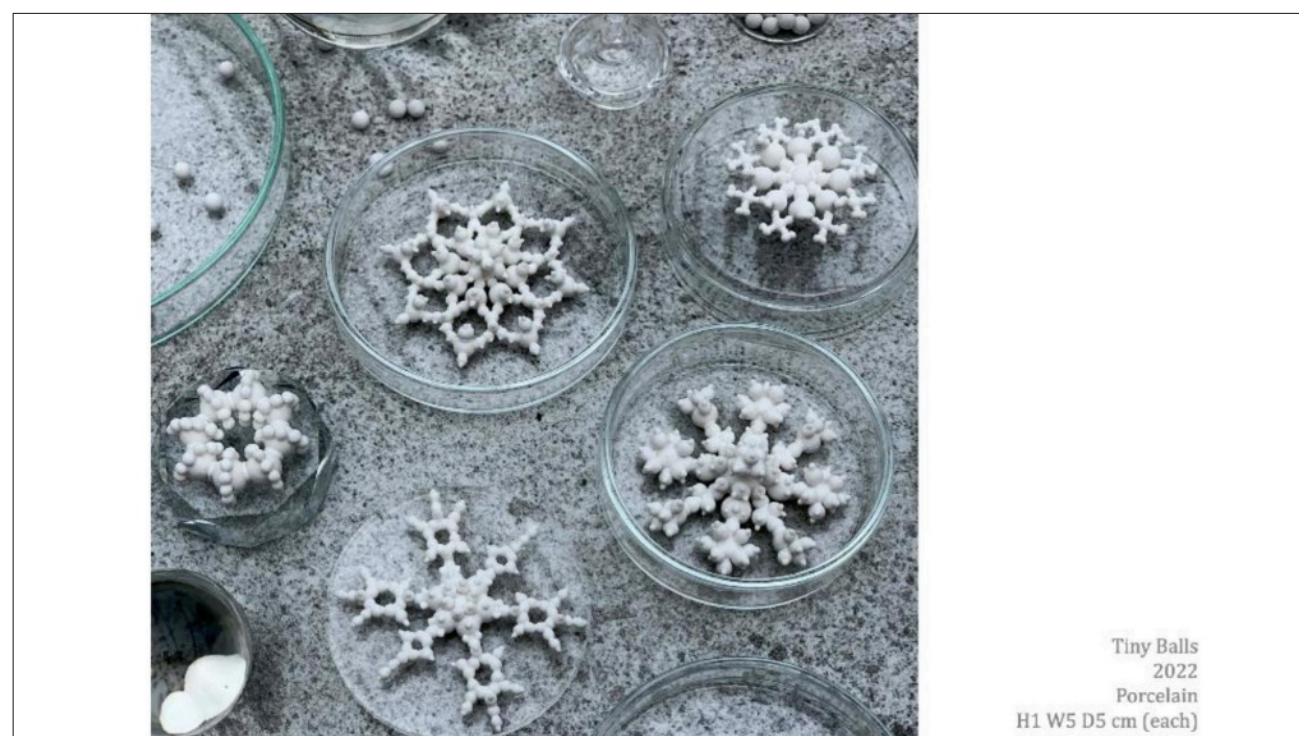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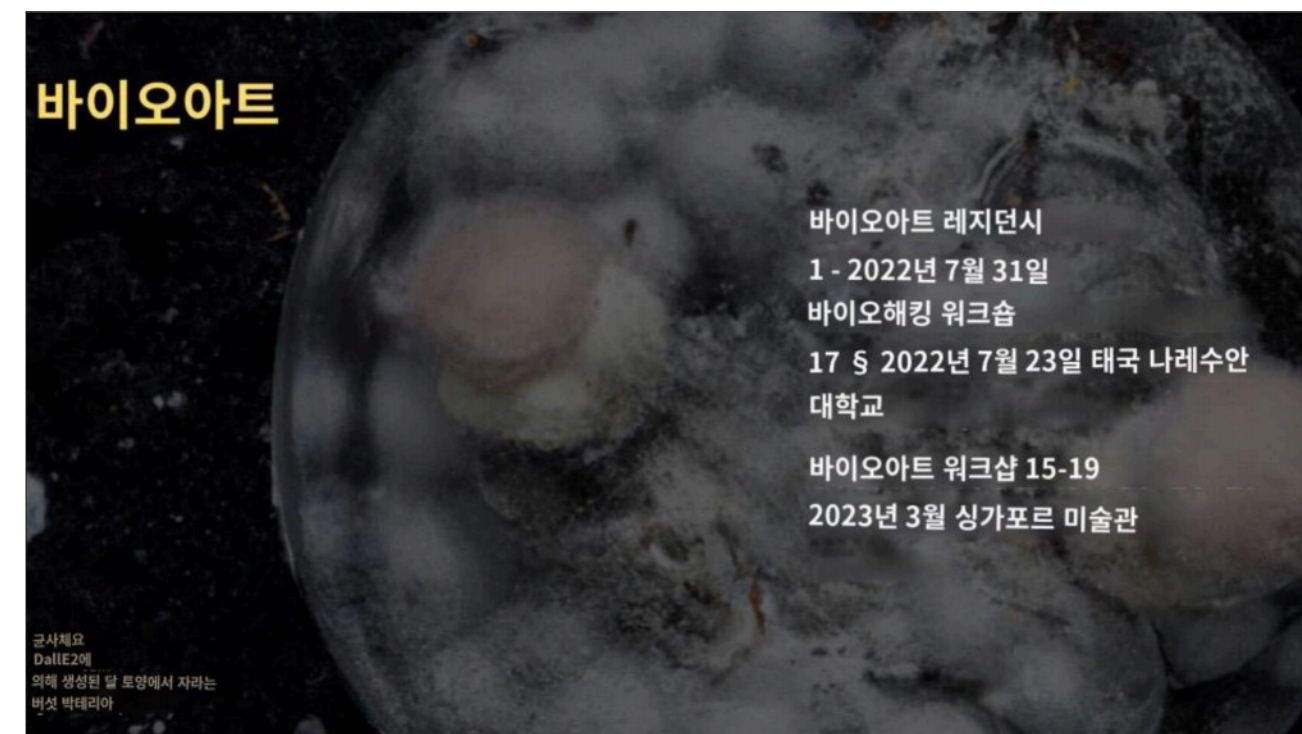
자연은 스스로 이 땅에 적합하게 자랄 것이다. 식물은 부주의한 바람일 수도 있고, 벌레와 물고기, 새의 침묵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르러서야 토양에서 잠든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이 착고 잠긴 몸체들은 위치를 크게 가리지 않고, 물후 통토에 알맞게 자라서, 사람들은 그 이름을 알지 못하며, '잡초'라고 부른다. 그것은 과거에 구전하던 청약초나 나물로 기억되며, 사람과 토지의 가장 단순한 교제이다. 차에 적합한 잡초는 '토지가 일태한 레시피'로 일요를 재조합하여 차를 만든다. 어떤 시절 아궁이 앞에서 약초를 잡아서 집으로 돌아와 찹초차를 끓이는 것처럼, 곁에 자라서 손에 익은 이 식물들은 대부분 열을 내리고 더위를 식혀 습기를 없애 기루가 습하고 무더운 대만인에게 적합하며, 땅이 너를 가장 잘 안다 /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렇게 익숙한 맛이다.



Ei air

방콕, 태국









헨리 탄

🌐 henryandpartners.com 📷 [cyberotic](https://www.instagram.com/cyberot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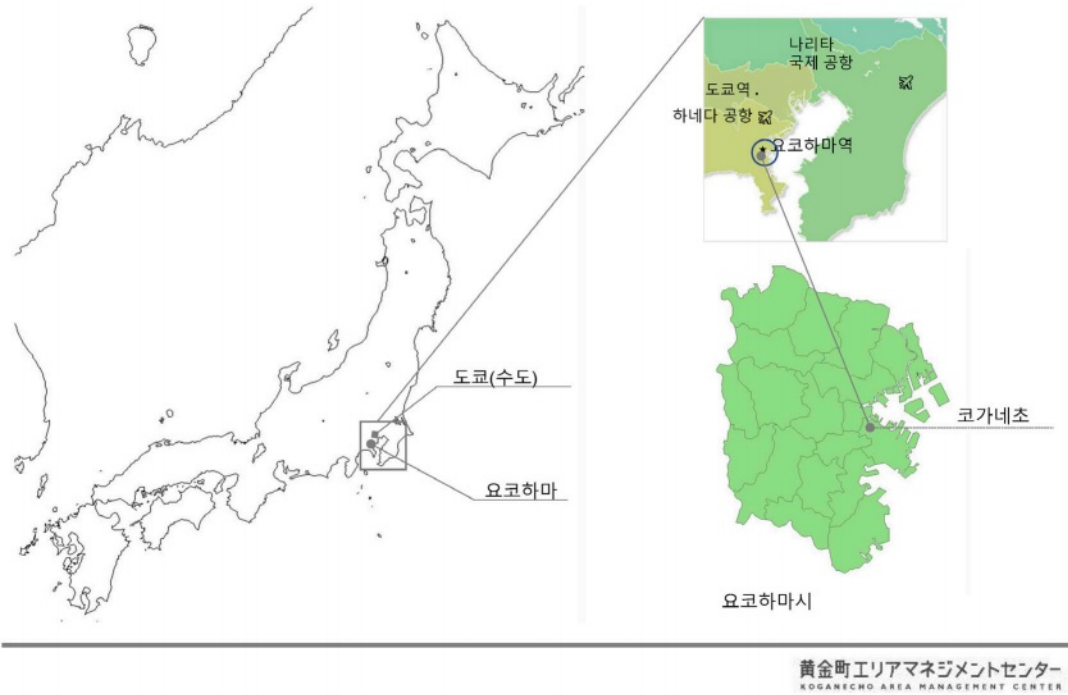
The Koganecho Bazaar 코가네초바자

코가네초 지역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쓰는 역사 “코가네초바자”
코가네초바자는 코가네초 지역의 역사를 설명할때 빼놓고는 절대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의미를
갖는다. 코가네초역과 히노데초역 사이 게이큐선 철도 고가 밑에 수많은 위락시설들을 지역민, 아티스트,
자치단체의 협력으로 변화를 시작하고 현재까지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매번 코가네초바자는 아티스트의 작품을 소개하는 것을 뛰어넘어, 지역민과 예술가, 행정 모두가 하나가 되는
예술 축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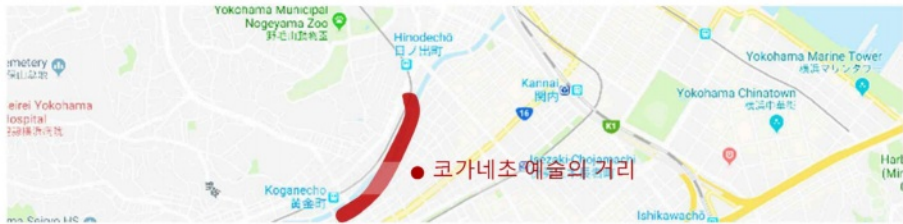
야마노 신고
(일본, 코가네초 에어리 매니지먼트 센터 대표)
Shingo Yamano
(Japan, Koganecho Area Management
Representative)

위치



黄金町エリアマネジメントセンター
KOGANECHO AREA MANAGEMENT CENTER

코가네 초 지역



게이 큐선 아래에는 오오카 강을 따라 많은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黄金町エリアマネジメントセンター
KOGANECHO AREA MANAGEMENT CENTER

코가네 초 지역의 역사



고가네초 지역에는 한때 250 여곳의 집창촌이 위치하였다.

2003년 지역 주민들은 "하츠네 초-코가네 초 및 히노데 초 환경 정화 추진 위원회"를 구성



2005년 « 바이바이 작전 » (불법상점 점검) 경찰에 의해 시작

2008년 « 코가네 초 바자회 » 개최

2009년 «NPO 코가네 초 지역 관리 센터» 설립

黄金町エリアマネジメントセンター
KOGANECHO AREA MANAGEMENT CENTER

코가네 초 바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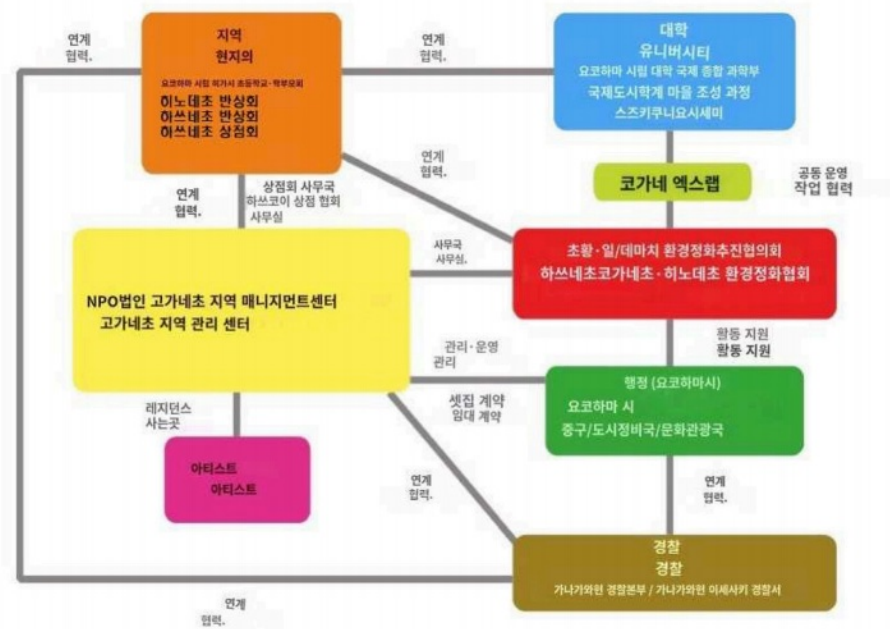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黄金町エリアマネジメントセンター
KOGANECHO AREA MANAGEMENT CENTER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



黄金町エリアマネジメントセンター
KOGANECHO AREA MANAGEMENT CENTER

코가네 초 바자 2008



날짜:
9월 11일 - 11월 30일

아티스트: 24개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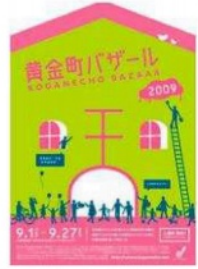
방문자 수:
약 100,000



혼마 준 本間純 / 일본

黄金町エリアマネジメントセンター
KOGANECHO AREA MANAGEMENT CENTER

코가네 초 바자 2009



날짜:
9월 1일-27일까지

아티스트: 10개 그룹

방문자 수:
약 15,000



르 장티 겐슨, 프랑스 / LE GENTIL GARÇON, France

黄金町エリアマネジメントセンター
KOGANECHO AREA MANAGEMENT CENTER

코가네 초 바자 2011

마을의 소리



날짜:
8월 6일-11월 6일
(82일)

아티스트: 29개 그룹

방문자 수:
92,534



사토우 리사, 일본 / Risa Sato, Japan

* 같은 해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와 연대

黄金町エリアマネジメントセンター
KOGANECHO AREA MANAGEMENT CENTER

코가네 초 바자 2010

관광과 예술



날짜:
9월 10일-10월 11일
(32일)

아티스트: 40개 그룹

방문자 수:
약 15,000



아베 타이스케, 일본 / Taisuke Abe, Japan

黄金町エリアマネジメントセンター
KOGANECHO AREA MANAGEMENT CENTER

코가네 초 바자 2012

부활



Date:
19 Oct. - 16 Dec.
(59days)

Artists: 33 groups

Number of visitors:
20,760



마이클 요한슨, 스웨덴 / Michael Johansson, Sweden

黄金町エリアマネジメントセンター
KOGANECHO AREA MANAGEMENT CENTER

코가네 초 바자 2013



날짜:
9월 14일 - 11월 24일
(62일)

아티스트: 16개 그룹

방문자 수:
14,4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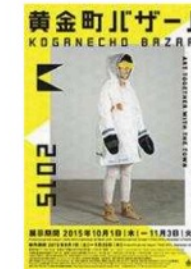


와다 마사히로, 일본 / Masahiro Wada, Japan

黄金町エリアマネジメントセンター
KOGANECHO AREA MANAGEMENT CENTER

코가네 초 바자 2015

도시와 함께하는 예술



Date:
10월 1일 - 11월 3일
(30 일)

아티스트: 20개 그룹

방문자 수:
12,456



장 진, 중국 / Zhang Jin, China

黄金町エリアマネジメントセンター
KOGANECHO AREA MANAGEMENT CENTER

코가네 초 바자 2014

상상의 공동체 아시아



날짜:
8월 1일 - 11월 3일
(89일)

아티스트: 39개 그룹

방문자 수:
43,447



라이어 벤, 베트남 / Liar Ben, Vietnam

* 같은 해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와 연대

黄金町エリアマネジメントセンター
KOGANECHO AREA MANAGEMENT CENTER

코가네 초 바자 2016

상상의 공동체 아시아



날짜:
10월 1일 - 11월 6일
(32일)

아티스트: 54개 그룹

방문자 수:
13,491



강 아-추 康雅筑, 台湾 / KANG Ya-chu, 대만

黄金町エリアマネジメントセンター
KOGANECHO AREA MANAGEMENT CENTER

코가네 초 바자 2017

더블 파사드
상대와 조우하는 다양한 방법



날짜:
8월 4일 - 11월 5일까지
(88일)

아티스트: 25개 그룹

방문자 수:
38,703



전보경, 한국 / Jun Bokyoung, Korea

* 같은 해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와 연대

黄金町エリアマネジメントセンター
KOGANECHO AREA MANAGEMENT CENTER

코가네 초 바자 2019

새로운 머내저리 (동물원)



날짜:
9월 20일 - 11월 4일
(45일)

아티스트: 23개 그룹

방문자 수:
17,184



아카사 서점

黄金町エリアマネジメントセンター
KOGANECHO AREA MANAGEMENT CENTER

코가네 초 바자 2018

날으는 슈퍼 마켓



Date:
9월 21일 - 10월 28일
(33일)

아티스트: 36개 그룹

방문자 수:
12,889



스피크 크립틱, 싱가포르 / Speak Cryptic (Farizwan Fajari), Singapore

黄金町エリアマネジメントセンター
KOGANECHO AREA MANAGEMENT CENTER

코가네 초 바자 2020

아티스트와 커뮤니티



날짜:
9월 11일 - 10월 11일
11월 6일 - 11월 29일
(55일)

아티스트: 51개 그룹

방문자 수:
30,840



랄프 롬브레스 Ralph Lumbres / 필리핀

黄金町エリアマネジメントセンター
KOGANECHO AREA MANAGEMENT CENTER

코가네 초 바자 2021

나란히 만들기



날짜:
10월 1일 - 10월 31일
(31 일)

아티스트: 41 개 그룹

방문자 수:
9053



라길 드위 푸트라 Ragil DWI PUTRA / 인도네시아

黄金町エリアマネジメントセンター
KOGANECHO AREA MANAGEMENT CENTER



黄金町エリアマネジメントセンター
KOGANECHO AREA MANAGEMENT CENTER

코가네 초 국제 항공 전시회 2022 년



자젤 크리스틴, 필리핀

콤 앤 포이, 태국

날짜 :
10 월 1일 - 10월 16일 (16일)

아티스트 : 5개 그룹
+ 코가네초 레지던스 아티스트

黄金町国際AIRプログラム
2022 成果展

交流再来

Koganecho International AIR
Program 2022 Exhibition

Return of Exchange

黄金町エリアマネジメントセンター
KOGANECHO AREA MANAGEMENT CENTER

2022 문화다양성 콘텐츠 큐레이터전

- 사전 실무자 라운드 테이블

□ 추진개요

- 일 시: 2022. 9. 29.(금) 14:00
- 장 소: 청년작당소 (중구 신창동)
- 참여대상: 국내외 문화다양성 활동주체 및 주요 사업 실행 주관처 관계자
- 내 용: 다양한 매체(책, 음악, 영상, 축제 등)을 통한 실무자 또는 예술가가 추천하는 문화다양성 콘텐츠 소개 및 관점 공유
- 일 정 표

시간	구 분	진행 내용
13:30~14:00	접수	참여자 등록
14:00~14:30	여는 말(10')	서상호 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본부장
	부산 사례(20')	부산문화재단 문화다양성 콘텐츠 운영 방식 - 김연진 부산문화재단 문화공유팀
14:30~16:00	출판·문학·언어	분야별 실무자 또는 예술가가 추천하는 문화다양성 콘텐츠 운영 방식 및 관점 공유
	시각예술 (전시, 영상, 미디어아트)	▶ 부산문화다양성교육연구소 ▶ 인천서구문화재단 거버넌스팀 ▶ 인천영상위원회 기획사업팀 ▶ 광주문화재단 문화사업팀 ▶ 영등포문화재단 문화도시정책팀 ▶ 당진문화재단 예술교육부 ▶ 울산문화재단 지역문화팀 ▶ 완주문화재단 정책기획팀 ▶ 경북문화재단 문화사업팀 ▶ 금정문화재단 지역문화팀 ▶ 김해문화재단 문화도시팀 ▶ 구로문화재단 지역문화사업팀 ▶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 추진위원회
	공연예술 (음악, 축제, 행사)	
16:00~16:30	종합토론 및 마무리	분야별 콘텐츠 선정 및 소감 나누기

[목차]

■ 문화다양성 콘텐츠 큐레이션展

부산문화재단	-----
부산문화다양성교육연구소	-----
인천서구문화재단	-----
인천영상위원회	-----
광주문화재단	-----
영등포문화재단	-----
김해문화재단	-----
금정문화재단	-----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 추진위원회	-----
경북문화재단	-----
구로문화재단	-----
울산문화재단	-----
완주문화재단	-----

부산 문화다양성 콘텐츠 운영전략

부산문화재단 문화공유팀

01. 부산 문화다양성 사업현황

추진 현황

(1기) 2012 ~ 2016
이주민과 선주민 간 교류 다문화 중점
- 부산형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축제 등 개최

(2기) 2017 ~ 2019
문화다양성 기반 조성
- 문화다양성 주제 확장 및 민간 네트워크 구축

(3기) 2020 ~ 2022
공공-민간 협업 거버넌스 활성화
- 부산문화비전 & 부산문화재단비전 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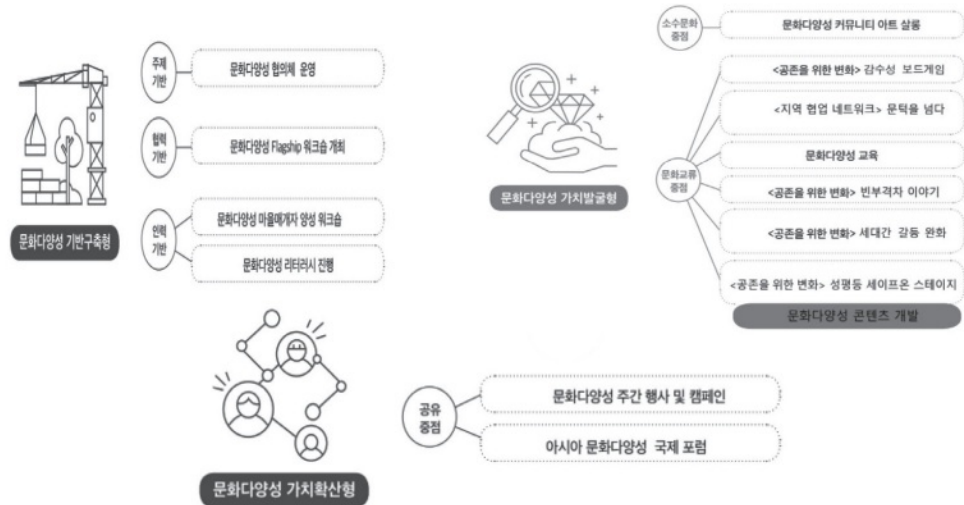
문화다양성 사업 관련 추진 성과



추진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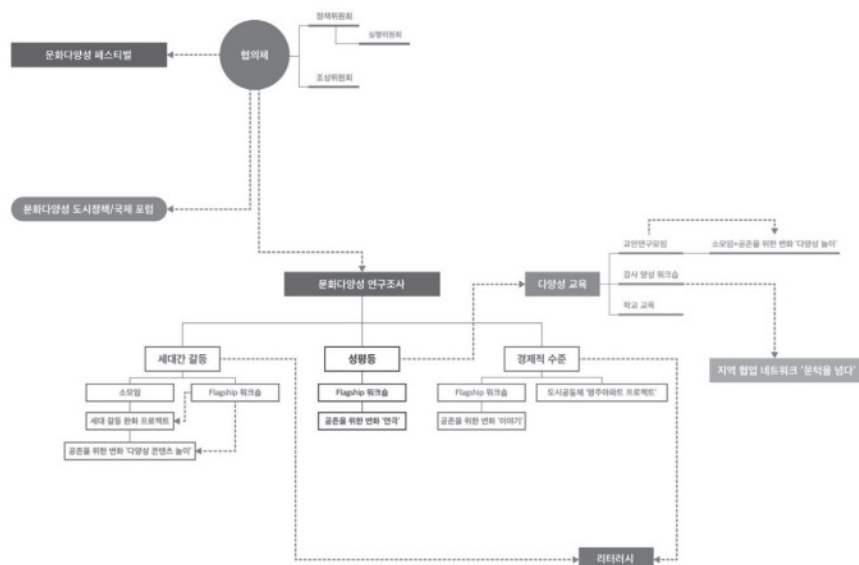
✓ 운영과정 자체에 문화다양성을 녹인다

지역 사회의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담론을 형성하고, 주체를 양성하는 전략을 수립



추진 프로그램

✓ 총 프로그램 수 10개, 참여자 수 12,000명, 협력주체(단체)수 410곳



프로그램 사례

✓ 아시아 문화다양성 국제 포럼(2020) / 문화다양성도시 정책포럼 (2021)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 인프라 구축 및 지속 가능한 국제 교류 협력 환경 조성
문화다양성 이슈를 바탕으로, 포용과 연결의 부산으로서의 이미지 브랜딩화



2020 Across 상호교차, 문화다양성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
2020. 11. 27. 누리마루APEC하우스, 인도네시아 외 6개국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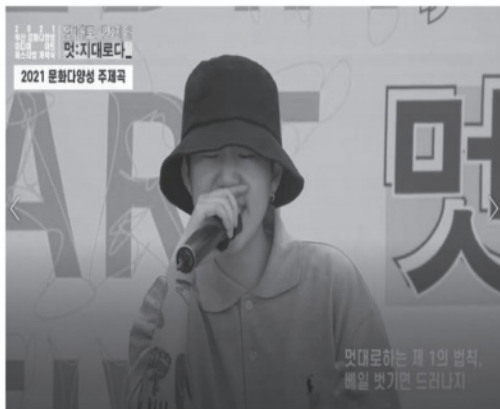


2021문화다양성 X 부산, 지속가능한 문화다양성
2021. 11. 19.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

프로그램 사례

✓ 공존을 위한 변화 - 문화다양성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

지역 특화된 문화다양성 화제 발굴 및 맞춤형 콘텐츠 개발
다양한 예술장르와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통한 사업 대상 범위 확대



문화다양성 음원 - 솔릭 <멋>
https://youtu.be/OL_6ClByjA0



문화다양성 웰드라마 -여성, 장애, 노인, 쿼어 4편
<https://youtu.be/h71ZmPTYOeA>

프로그램 사례

✓ 공존을 위한 변화 - 문화다양성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

지역 특화된 문화다양성 화제 발굴 및 맞춤형 콘텐츠 개발
다양한 예술장르와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통한 사업 대상 범위 확대



교육용 보드게임 - 불편한 여행!



소설(이야기) - 팬데믹 아트살롱



독립 영화 - 여기, 나의 정원

프로그램 제안

문화다양성의 이야기를 당위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보다는
프로그램의 참여자가 질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설계

✓ 세대 갈등 완화 프로젝트



가족 간 대화를 위한 질문 톨킷을 개발하고
홈페이지 업로드하고 시민들에게 공유

✓ 세이프 온 스테이지 프로젝트



부산문화예술계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성평등한 창작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부산연극계 자치 규약(부산판 CTS) 제작

프로그램 제안

문화다양성의 이야기를 당위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보다는
프로그램의 참여자가 질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설계

✓ 세대 갈등 완화 프로젝트



<오늘은 가족> 전시

인터뷰 내용 및 자료 데이터 시각화, 질문 토크 체험

✓ 세이프 온 스테이지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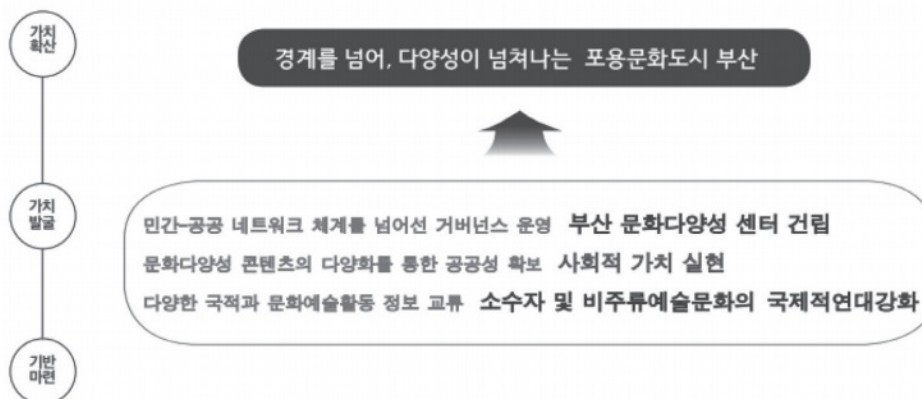


<선언행사> 낭독극

부산연극계 자치규약집 제작 및 의견 수렴

사업 운영 방향 제언

✓ 부산문화비전 2030 4대 가치 해양성, 다양성, 창의성, 혁신성



감사합니다 .

1. 부산문화다양성교육연구소

콘 텐 츠 명	문화다양성 감수성 교육 <우주탈출>
콘텐츠 유형	시각 예술 (전시, 영상)
추진 개요	○ 일 시: 2022. 7. 19. (화) ~ 8 28. (일) 10:00 ~ 18:00 ○ 장 소: 한성1918 부산생활문화센터 청자홀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길13) ○ 운영형태: 현장접수 및 사전예약 병행 자유관람(10:00~14:30) 및 도슨트관람(15:00~18:00) 으로 나눠서 운영 ○ 주요내용: 2021년 학교교육으로 진행되었던 <우주탈출> 교안을 체험형 전시로 전환

우주의 다양한 행성인들이 함께 지구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 우주선에는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구르미 행성인, 초롱초롱 행성인, 퍼미션투댄스 행성인, 신드롬 행성인이 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주를 만끽하던 중 우주선이 우주쓰레기와 충돌하면서 여행은 순조롭지 않게 흘러갑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우주여행을 떠난 행성인들은 지구에 무사히 도착하였을까요?

앞선 내용은 '부산문화다양성교육연구소 딠다(이하 '딠다')'가 장애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바라보기 위해 만든 교육 <우주탈출>의 내용입니다. <우주탈출>은 2021년도 학교교육으로 진행하고 2022년도 체험형 전시로 전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장애에 대한 시혜적 시선 대신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능력을 가진 존재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며 우주여행이라는 이야기 속에 다양한 미션을 심어두었습니다.

지난 더웠던 여름 '딠다'는 매일 다양한 행성인들과 여러 차례 우주여행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모든 여행의 결말은 행성인들이 지구에 도착은 했지만 입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전시에 참여한 분들은 미션을 해결하고 드디어 해피엔딩을 맞을

거라 기대하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하였고 화를 내었고 어린 학생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비로소 참여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미션을 해결하는 탈출 게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어요. 그리고 행성인으로서 진정한 자각이 시작됩니다.

‘딤다’는 신나고 재미있는 문화다양성 교육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당연한 이야기들은 때론 교훈적이어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거나, 지루하다고 여겨져 귀 기울여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일상과 괴리된 지겨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흥미롭게 풀어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미를 고민하는 과정은 활동가들에게도 즐거운 시간입니다. 재미있게 놀다 보니 어느새 배움도 있었구나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문화다양성은 재미만으로 풀기 어려운 무수한 지점을 안고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른지 섬세하게 고민해야 하고, 누군가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지, 오해를 낳지는 않는지,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되는 건 아닌지 고민해야 할 거리가 쏟아집니다. 신나게 가자고 외치면서도 한편에는 잘못된 접근은 아닌지 틀리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무거운 추가 달려있습니다.

〈우주탈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딤다’의 연구원뿐만 아니라 예술강사, 문화기획자가 함께 모여 4개월간 10차례의 교안회의를 진행하며 재미와 교육의 균형을 잡기 위해 섬세하게 조율하였습니다. 장애에 대한 은유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어떤 시선으로 진행시킬 것인지, 이야기의 흐름에 위화감은 없는지, 당사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읽힐지 등 다양한 질문을 꺼내어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나는 게임 끝 일상으로 연결하고

사유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극적인 전환점이 필요했고
배드엔딩(새드엔딩)을 채택하였습니다. 단순히 분노와 좌절감으로
마치지 않기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안하는 후속활동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문화다양성 교육을 만드는 일은 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일로 느껴집니다. 교육을 만드는 기획자들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더라도 스펙트럼 위에 각자 달리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주제에 대해 서로의 가치관과 생각을 나누며
맞춰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치교육에 문화예술을 접목하는
과정도 균형을 요구합니다. 예술적 체험과 교육 메시지의 전달은
때론 각각 시소의 끝에 있어 하나를 높이면 하나가 낮아지는 것
같아 무엇을 우선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기획자들은 해방과
절제를 반복하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첨예하게 토론합니다. 이
작업에는 보이지 않는 참여자도 있습니다. 바로 교육
대상자입니다. 교육을 만드는 사람 간의 소통은 나아가 우리의
교육 대상자들과의 소통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잊히지 않는 시간이기를 바라며 상상과
예측을 거듭해갑니다.

게다가 <우주탈출>은 지난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교안을
체험형 전시로 전환하였습니다. 시나리오에 등장한 우주선을 실제
공간으로 창조하고, 참여자들이 실감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콘텐츠이니 공간 조성만 하면
되지 않을까 쉽게 생각했지만 실제 구현 과정은 달랐습니다. 물론
검증을 끝낸 콘텐츠라는 점에서 자신은 있었지만 자신감만으로
공간이 생겨나지는 않으니깐요. 이 과정도 숭한 균형 잡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교안 개발 과정에 이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공간을 조성하고, 기술을 설계·구현하고, 전시장을 운영하는 인원들이 서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4개월가량 준비한 끝에 드디어 <우주탈출>의 전시가 완성되었습니다. 놀라웠던 점은 이 전시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 참여하신 분들이 전시의 의미를 보다 더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 공부를 해나간 점이었습니다. 초기의 교안이 놓쳤던 점은 없는지 다시 점검하고 질문하면서 <우주탈출>은 미세한 조정을 또다시 거쳤습니다.

상상을 하며 그렸던 이야기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일은 기대보다 훨씬 더 신나고 가슴 뛰는 경험이었습니다. 아마 전시를 보러 와 주신 분들도 그러했겠지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며 1달 반의 전시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주탈출>의 의도가 오해 없이 잘 전달될까 고민하는 마음은 전시장을 나가면서도 우주공용어 몸짓언어로 소통하는 관람객들을 보며 사라졌고, '제가 실제로 퍼미션투댄스 행성인인데요.'라며 전시의 감상을 신나게 들려주는 당사자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모두가 함께 만든 이 콘텐츠는 무사히 완성되었습니다.

전시의 성공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우주탈출>은 내년 게임화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시금 새로운 분들과 함께 새로운 균형을 맞춰나갑니다. 초롱초롱 행성인의 촉각언어를 모바일로 어떻게 살릴까, 구르미 행성의 바퀴는 어떻게 구현할까 등 또 다른 문제들을 마주하며 문화다양성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일은 참 쉽지 않다고 느끼지만 그럼에도 재미난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지 또 한 번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인천서구문화재단

콘 텐 츠 명	TOY CYCLE 무지개로 돌아온 내 장난감 : 폐장난감이 예술이 되는 인고의 시간
콘텐츠 유형	시각 예술 (전시, 영상)
추진 개요	○ 일 시: 2022. 5. 17. (화) ~ 2022. 5. 29.(일) 10:00 - 18:00 ○ 장 소: 청라블루노바홀 전시실 (인천시 서구 청라대로 26) ○ 운영형태: 교육, 체험, 이벤트를 더한 오프라인 기획전시 ○ 주요내용: 아동-환경-노동을 주제로 한 문화다양성 주간 단독 기획전시 (자원순환 교육)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움직임,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 (체험) 폐완구를 활용한 나만의 장난감 만들기, 커피박 키팅 만들기, 고장난 장난감 수리, 플로깅, 폐막식 (이벤트) 장난감 나눔, 전시 관람 후기 작성 이벤트 (연계협력) 아시테지 어린이예술축제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을 담당하며 처음 든 고민은 함께하는 시민들에게 문화다양성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분야나 장르에서의 세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문화다양성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나에 대해 알고 나와 다른 이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문화다양성을 이야기할 때, 올해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3년차를 맞이해 문화다양성 주간 단독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더욱 우리의 삶과 밀접한 분야, 장르에서의 문화다양성을 이야기해 보고자 했습니다.

올해 '어린이날 100주년'을 시작으로 '아동친화도시 서구-코로나19 장기화-환경-자원순환'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단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때마침 자원순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와 소통하던 중 이 단어들을 조합하며 탄생한 것이 바로 '무지개로 돌아온 내 장난감' 전시입니다.

일상 속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하고자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폐완구를 매개로 교육, 체험,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크게 작품 전시, 영상, 부대행사로

기획했습니다. 먼저 폐완구, 폐플라스틱 자원순환 과정과
작업환경을 담은 영상을 통해 어린이들에게는 자원순환에 대한
과정과 가치를, 성인에게는 자원순환 종사자들의 노고를
이야기했다면, 폐완구를 분해하고 분쇄해 만든 아트패널 '널'을
이용해 예술작품을 처음 선보였고, 사전 신청에 한 해 폐장난감을
나만의 장난감으로 만들며 한쪽 벽면을 채워가며 완성하는
참여형 전시 '함께 만드는 무지개 장난감 존, 체험존'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가 더욱 의미 있던 것은 다양한 연령대에
문화다양성을 알린 것은 물론 운영단체를 통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다양한 단체와 연계협력하며 전시를 기획하고 운영한
것입니다. 커피박 체험, 자원순환 교육, 장난감 수리, 전시실
야외에서 진행한 플로깅, 전시 폐막식을 끝으로 함께
연계협력했던 단체들과 버려지는 자원과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
그리고 다양한 자원순환에 대해 교류하면서 우리의 일상 속
다양한 자원순환의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에 대해 소통하고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또 재단 내부에서도 부서 간 끈끈한
연계협력으로 아시테지코리아와 인천지역 10개 공공기관 연대로
개최한 아시테지 어린이예술축제와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을
연계했습니다. 무지개로 돌아온 내 장난감 전시 홍보 안내와
문화다양성 캐릭터 스티커를 담은 리플릿을 제작하고 배포하면서
아동 문화권리 증진에 기여하고, 전시 어텐던트 배치를 통해
원활한 전시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획전시가 끝난 이후에도 운영단체를 포함해 다양한 단체들과
문화다양성 소통을 이어가며 인천 서구의 문화다양성을 표현하고
나누고 채워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인천서구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문화다양성 인스타그램(@iscf_cd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인천영상위원회

콘 텐 츠 명	디아스포라 영화제
콘텐츠 유형	공연 예술 (축제, 행사)
추진 개요	○ 일 시: 2022. 5. 20. (금) ~ 5. 24. (화) [온라인 극장 2022. 5. 13.(금) ~ 5. 24(화) 운영] ○ 장 소: 애관극장(인천광역시 중구 개항로 63-2 (경동))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중구 제물량로218번길 3) ○ 운영형태: 영화상영, 연극공연, 교육 등 ○ 주요내용: - 31개국 81편 76회차 영화 상영(국내50편, 해외 30개국 65편 @온라인 상영 18개 작품 포함) - '디아스포라 기행' 연극 공연, 2021 인천아트플랫폼 큐레이터 스쿨 기획전 <날것> 전시 협력 - 10주년 포럼, 유엔난민기구 협력 토크, 연극 연계 토크, 특별도서 '보통의 우리' 연계 토크, 서경식 교수 초청 강연, 디아스포라영화제 온라인 아카데미(곽영빈&김아영) 업로드 예정(10, 11월) - 영화 비평 워크숍 '활동사진', 청소년 영화 제작 워크숍 '영화, 소란' 운영 - 만국시장X디아스포라영화제 플리마켓 디아스포라 모험 미로 체험, 개항장 투어, 한국이민사박물관 투어 프로그램 운영

1. 디아스포라영화제

디아스포라영화제는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난민, 추방, 실향, 이민 등 다양한 형태의 이주를 살펴봄으로써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기획된 복합 영상문화축제다. 이주의 역사와 함께해온 인천의 정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천에 거주하는 선주민과 이주민의 공존과 화합을 기획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축제의 프로그램은 크게 국내외의 장·단편 영화를 상영하는 '상영 프로그램'과 전문가를 초빙해 강연, 토크, 포럼 등을 진행하는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매해 포커스 섹션을 운영하여 급변하는 문화다양성 이슈에 발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또한, 행사 공간을 포함한 축제 전체의 디자인을

체험적으로 구성하고, 연극, 전시, 플리마켓, 공연, 교육, 체험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본 축제는 연중 5월 셋째 주 중 개최되며, 이후에는 영화제작 워크숍, 순회상영회 등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수많은 장르의 프로그램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축제이기에 실무진으로서 그간 많은 문제와 한계를 경험해왔다. 거칠게 나누면 사회의 소수자로서의 디아스포라 그 자체를 다룰 때 떠오르는 고민과, 이와 부분적으로 연동된 축제 준비 과정상의 기술적·운영적 문제들이 있다. 본 발제에서는 그 고민과 문제들을 다양한 분야의 문화다양성 주관처 실무자분들과 나누고자 한다.

2. 디아스포라의 고민들

1) 우선, '디아스포라'라는 개념 그 자체로부터 오는 고민이 있다. 디아스포라(혹은 문화다양성)라는 개념 자체가 다소 난해하다는 점이다. 행사와 관객을 매개해야 하는 기획자로서 이러한 어려운 개념들에 시민들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매해 고민하고 있으며, 일례로 지난해 젊은 작가들과 함께 협업한 소설집을 『보통의 우리』를 발간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시도를 하고 있다.

2) 더불어, 이주민의 소수자성을 어떻게 다룰지 매 순간 고민한다. 예를 들어, 결혼이주여성을 결혼이주여성으로 호명하는 것 자체에서 오는 차별은 없는지, 또는 난민을 가시화할 때 당사자에게 혹여나 위협이 가해지지 않는지 항상 경계하게 된다. 지난해 성소수자 난민을 포커스로 했던 제9회 디아스포라영화제에서는 개막작으로 체첸공화국의 성소수자 박해를 다룬 <침묵의 목소리>(레카 발레릭, 2020)를 상영했으나,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협으로 인해, 감독의 신상을 공개치 않은

바 있다.

3) 문화다양성의 주체와 그들의 문화생산물 어떠한 각도로 이해할 것인지 역시 중요한 문제다. 디아스포라영화제의 영화제작 워크숍 <영화, 소란>을 예로 들 수 있다. 해당 워크숍에서는 매해 선주민과 이주민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짧은 단편 영화 제작한다. 실습에 앞서 문화다양성 강연을 진행하는 등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지만, 실제로 제작된 작품들은 문화다양성하고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청소년 다섯이 모인 그룹에서 로맨스물이 제작되는 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즉, 기대와 결과 사이의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3. 기술적 · 운영적 문제들

1) 문화다양성이라는 특정한 주제를 다루는 것은 실무 전체에 영향을 준다. 그 중 '언어'는 특히 어려운 문제 중 하나다. 영화의 대사 · 자막 중요성을 말할 것도 없으며, 홍보물에도 여러 언어의 번역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경우 소통을 돕기 위해 다양한 언어의 통역자가 필요하다. 심지어 이를 배리어프리로 확장하면 언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제10회 디아스포라영화제에서는 한국어 대사 작품에 한글 자막을 추가하는 등 부분적으로 배리어프리를 시도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2) 본 축제가 문화다양성 담론이 오갈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시민들의 인식재고라는 측면에서 시민 접근성 향상 역시 필수적이다. 따라서 관객들의 니즈와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여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시민들의 피드백이 필요하다. 본 행사에서는 매해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지만, 연중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는 축제이기에 다음해까지 시간적인 거리가 발생한다. 하여, 상시로 관객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채널을 찾고 있다.

3) 다양한 외부적 요인들은 자칫 행사에 치명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행사 공간의 확보가 어려워지는가 하면, 관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무척 어려웠던 경험에 있다. 축제라는 대면 행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타파해나갈 수 있을지 고민이다. 관련해, 곳곳에서 비대면 문화행사가 증가하고 있는데, 본 축제는 아직 경험이 많지 않기에 어떤 장르와 프로그램을 비대면 채널로 진행할지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4)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은 본 축제의 가장 큰 관심사다. 사회에 만연한 혐오로 인해 이주민은 다소 폐쇄적인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는 듯하다. 다문화센터나 지역의 자생적인 커뮤니티와 소통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 또한 만만치 않다. 현재, 디아스포라영화제는 매해 마치 디아스포라처럼 인천의 이곳저곳을 떠돌고 있다. 안정적으로 확보된 축제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하여 기획 초기 단계에서 장소의 선정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며, 이는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그뿐만 아니라 영화라는 특정 장르에 특화된 축제이기에, 연극·전시·공연 등 다른 장르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4. 다양성에서 다양성으로

문화다양성이란 말에는 경이로운 부분이 있다. 이주라는 글로벌한 현상으로 인한 문화적 공존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 머리를 맞대며 일하는 실무자들 간에도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교육과 경험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협업하며 만들어낸 공동의 결과가 바로 디아스포라영화제다. 더욱이 본 축제가 열리는데 협력해준 다양한 지역사회의 주체들과 유관기관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면, 오히려

문화다양성 자체가 디아스포라영화제라는 문화다양성 축제를 만드는 건 아닌지 생각한다. 이번 포럼을 통해 여러 분야의 문화다양성 주관처 실무자분들과 함께 문화다양성의 내일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4. 광주문화재단

콘 텐 츠 명	사람책
콘텐츠 유형	출판,문학,언어
추진 개요	○ 일 시: 2022. 6월 ~ 11월 ○ 장 소: 광주광역시 일대 ○ 운영형태: 인터뷰 및 출판, 지역 내 동네책방 ○ 주요내용: 지역 내 소수주체인 동네책방 활성화, 문화다양성 저변 확대 - 동네책방 작가 3인, 1인 출판사 1명, 지역 사진작가 1명

- 추진배경 및 기획의도

· 문화다양성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지역 내 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동네책방(독립서점)을 주제로 광주 지역 곳곳에 있는 동네책방 활성화를 목적으로 프로그램 기획

· 동네책방을 장소적 배경으로 한 북콘서트 등이 논의 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장소를 기반으로 사람들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변화 필요

· 지역 내 소수자인 동네책방의 작가가 지역 문화다양성 인물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인물을 인터뷰 하고, 동네 책방을 통해 배포

· 시민들에게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알리고, 동네 책방을 찾게 함으로써 공간 활성화도 함께 도모

· 1인 출판사, 독립출판사를 통해 출판하고, 지역 내·국내 독립서점에 배포함으로써 지역 내 소수자들이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담는 의미 극대화

- 고민한 지점

(초기)

· 동네책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획을 진행했으나, 각 대표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너무 달라 사업의 준비단계에서

애로사항을 경험

- 글을 쓸 줄 아는, 작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네책방 대표가 다양하지 않았음.

- 전적으로 제작 단에 인물 선택의 권한 등을 부여하여 진행했으나 너무 넓은 범위의 인물들이 선정되어 '문화다양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었음.

- 지역 내 '다양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는 것으로 하고, 모두가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제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되었음

(현재)

- 2022년 세 번째 시리즈로 발행예정인 사람책은 그동안 매 시리즈 마다 추진과정, 인물선정 등에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며 더 괜찮은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음. 다른 지역의 출판방식도 알고 싶음

- 사람책의 추진배경 및 기획의도에 따라 동네책방 대표들이 직접 인터뷰 하고 인터뷰 내용도 정리하고 있음. 전문작가도 아니고, 3인의 작가가 참여하다 보니 문체도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서로 다름. 이 점이 독자들에게는 전문 작가가 쓴 인터뷰집과는 다른 신선한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장기 시리즈로 생각하다보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원화를 시켜 통일성을 가져가야 할지에 고민은 있음.

- 당해연도 사업비 내 수량만 출판하여 진행하다 보니 지역 내 많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매년 생김. 국비다보니 출판권을 부여하고 판매하는 방법도 적용할 수 없음. 다른 지역은 어떤 방식으로 재출판 하는 지 알고 싶음.

- 운영과정

(운영절차)

- 제작단 구성 및 제작회의(작가진, 재단, 출판쪽) : 1~2차 진행

- 작가, 사진작가 등 개별 계약

- 인터뷰

- 원고 취합 후 출판 및 배포

(중점사항 : 제작회의)

- 재단과 제작단 간 제작회의를 통해 사람책 제작 방향 도출, 책 구성 논의, 일정조율. 인터뷰이 선정 등 개략적인 내용부터 세부사항까지가 확정되기 때문에 회의 자리를 통해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이루어짐

- 회의 일부)

1) 사람책3 1차 회의 - 재단에서는 책의 통일성을 위하여 대 주제를 선정하고 몇 개 분야의 한정된 인물 선정 등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다양한 인물선정을 방해하고 한정된 분야의 인물의 구성은 독자들에게 지루함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제작단의 피드백이 있었음. 대 주제 안에서 그에 따른 다양한 인물을 선정하는 방법은 동의할 수 있음. 하지만 통일성은 인터뷰이의 공통질문 2~3개를 통해서 추구해보는 것으로 추진. 2차 회의 전까지 작가진들이 주제 선정하고 개 별 인물 구상하기.

2) 사람책3 2차 회의 - 대 주제 아래에서 작가 진들이 선정한 인물 4~5명을 나누며 서로 중복된 분야가 없도록 조정하고, 이 인물을 왜 선택했는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은 지를 나눔. 기존 1-2권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서문 등을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길게 담을 건지를 결정함.

5.영등포문화재단

콘 텐 츠 명	사람책
콘텐츠 유형	출판,문학,언어
추진 개요	○ 일 시: 2022. 6월 ~ 11월 ○ 장 소: 광주광역시 일대 ○ 운영형태: 인터뷰 및 출판, 지역 내 동네책방 ○ 주요내용: 지역 내 소수주체인 동네책방 활성화, 문화다양성 저변 확대 - 동네책방 작가 3인, 1인 출판사 1명, 지역 사진작가 1명

무지개 다이어리는 '함께 쓰며 이해하는 우리들의 다양성'을 컨셉으로 마음속 벽을 낮추고 일상 속 문화다양성 감수성을 증진하고자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서울 영등포 지역은 대림동이라는 한국 최대 이주민 밀집 지역이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산업 구조와 지역이 변화하며 구로구의 가리봉동에서 중국 배경 이주민들이 오고, 새로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 이주민들이 여러 편의시설과 네트워크의 혜택을 보고자 유입되면서 대림2동을 중심으로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부인-외부인-장소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전에는 대림동의 선주민이 비이주배경의 한국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선주민이 이미 정착해서 오랜 시간 살아 온 중국 이주 배경 주민이기도 하며 선주민과 이주민의 위치성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대림동도 이주민 밀집 지역이기 이전에 다른 지역과 다를 바 없이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는 공간인데, 중국 동포(조선족)가 등장하는 영화 등의 미디어 및 언론에서의 부정적인 묘사로 인해 혐오와 차별 인식이 강화되었고 한 번 퍼진 부정적인 인식은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영화에서 대림동을 범죄자들로 가득한 지역으로 묘사했지만 실제로는 인구 대비 범죄율이 비

이주 배경 주민보다 오히려 낮기도 하고, 대림동 지역의 범죄율도 점차 낮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영등포의 어느 지역 못지않게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하지만, 손님으로 왔다가 빠져나가는 거주자와 방문객 사이의 거리가 꽤 먼 섬 같은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주민 밀집 지역이라는 특수성과 더불어 왠지 밤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동네라는 생각에 대림동이라는 지역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상황은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나가고, 계속해서 마음속 편견이 사실인지 누군가에 의해 심어진 허구인지 질문하게 하는 문화다양성 사업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무지개다이어리'가 탄생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다른 시민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만들어 서로를 '연결'해주는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시민이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을 직접 만들어보는 질문 워크숍을 진행했고, 시즌 1과 2에서는 질문을 적은 일반 노트로 답변을 수집해서 연말에 '무지개다이어리 결과자료집'을 제작하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답변이 모였는지는 알게 되었지만, 비치를 허락했던 사장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중단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남겨진 답들을 더 많은 시민과 나누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즌 3에서는 질문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적는 답을 또 다른 시민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시작 단계에서 직접 적어볼 수 있는 다이어리를 제작했습니다. 시즌 1, 2에서 수집된 답변 중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은 부분을 골라 디자인해서 손글씨 그대로 다이어리에 포함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훨씬 생동감 넘치는 무지개다이어리가 되었습니다.

시즌 3에서는 '차별' 혹은 '혐오'라는 단어를 최소화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단어를 들으면 더 어렵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계속 줄여나가고자 시즌 1, 2에서의 주제에 비해 무게감을 덜고 서로 알아가는 데에 필요한 가벼운 질문을 만들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다이어리는 영등포 지역의 셀프빨래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시즌 1과 2에서는 복합문화공간, 카페 등 다양한 공간에서 무지개다이어리를 만날 수 있게 했습니다. 연말에 답변을 모아보니 가장 많은 답변이 수집된 곳이 바로 셀프빨래방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답을 많이 할 것 같았는데, 자리에 다이어리가 놓여있으면 누군가 차지한 자리인 것처럼 보여 아예 앉지를 않던지 혹은 목적을 갖고 카페에 방문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용무를 보는 게 우선이지 다이어리를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셀프빨래방은 세탁과 건조 과정 동안 앉아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휴대폰을 보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었기에 오히려 앉아서 주변을 둘러볼 만한 여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즌 3에서는 셀프빨래방을 중심으로 무지개다이어리를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영등포 관내 셀프세탁방을 전부 모아보니 약 50군데가 나왔고, 이 중에서 사장님을 통화나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 설득해서 공식적으로 다이어리 비치할 허가를 받은 건 약 20~30군데 정도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버려지는 것을 감안하여 실물로 보고 마음이 바뀔까 해서 한 권씩 두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비치 허락을 받은 셀프세탁방에는 다이어리 2권씩, 펜 2개, 참여 유도 및 사업 이해를 돕고자 배너를 비치해두었습니다. 올해는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와 연계해서 홍보 효과를 높이하고자 5월 21일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에 맞춰 제작한 후 배포했습니다.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인 8월경 중간 점검을 가게 되었는데, 분실 여부와 답변 수집 현황을

확인하고자 몇몇 세탁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180도 펼쳐지는 형태의 다이어리를 제작했으나 많은 사람을 거치기에 내구성을 조금 더 신경 써야겠다는 것도 중간 점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펜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구석이나 책장 안에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배포 후 계속된 관리가 필요하고, 다음 시즌을 염두에 둔다면 비치된 다이어리에 수집된 답변을 취합하고자 일일이 방문해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 수고로움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작년에는 800여명이 넘는 답변이 수집되었고, 작년에 협력했던 셀프빨래방에서 연락이 올 정도의 일상 속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 우정과 환대의 영등포에서 시그니처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6.김해문화재단

콘 텐 츠 명	문화다양성 침해표현 시정 <말모이>
콘텐츠 유형	출판,문학,언어
추진 개요	○ 기 간 : 2019. ~ 2022. 9. 30. ○ 장 소: 김해시 전역 ○ 운영형태: 문화다양성 침해 표현을 찾아내고 발굴하는 캠페인 및 지역 언어(방언)의 재발견과 문학 활동을 통한 지역언어의 다양성 확보 ○ 주요내용: (말모이 기획단) 말모이 교재(카드놀이, PPT자료)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언어 인식 개선 교육 진행, 차별 및 침해표현 시정 말모이 오디오북 제작 (여성 네트워크 : 발칙한 XX들) 여성혐오 및 차별 표현에 대한 시대별 조사와 관련한 프로젝트, 성평등을 위한 캠페인 기획 및 실행, (어르신 네트워크 : 희망 품은 황혼) 지역언어 다양성 보호를 위한 지역어 수집 및 문학 활동 (장애인 네트워크 : 별의별 말을 찾는 사람들) 미디어 콘텐츠(영화,공중파 TV프로그램, 웹툰, 유튜브..등)에서의 장애인 혐오, 차별 표현 모니터링 및 개선 캠페인

2019년, 문화다양성 서포터즈 말모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삶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사용되는 차별과 편견이 담겨있는 단어들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 말들을 발굴하고 대체 단어를 찾아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년차,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시민 분들의 참여 속에 단어들을 찾아 발굴했고 문화다양성 관련 행사들에 참여하여 온라인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 및 가치 확산을 위한 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다양성을 해치는 혐오단어 및 차별단어들을 발굴하여 활동자료집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말모이 서포터즈들은 아쉬운 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단어의 당사자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둘째, 과연 단어의 당사자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셋째, 그렇다면 직접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결과 2020년 말모이 활동 목표를 '당사자성과 마주하다'로 정하고 5개의 당사자성을 대표하는 네트워크를 모집했습니다.

바로 (여성)발칙한 XX들, (장애인)별의별 말을 찾는 사람들, (노인)말모이 품앗이;희망품은 황혼, (청소년)청소하는 악어새, (이주민)다다우리온앤오프입니다.

2019년의 말모이가 혐오 및 차별 표현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를 개선개선해야겠다고 느낀 구성원의 모임이라면 2020년은 혐오 및 차별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기반으로 그 표현을 모으는 활동이 되었습니다.

각각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지고, 다양성 교육안을 작성하고 이에따른 캠페인들을 기획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소규모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이들의 정체성이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과정은 짧은 순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까지 소규모 네트워크들은 이어지고 각각의 정체성을 담아 내는 다양한 활동의 기록들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단어들과 이야기를 도시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친환경 컵홀더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캠페인 말모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모이 프로젝트가 시작된지 4년차입니다. 당사자성을 가지고 소수의 네트워크들은 말모이를 통해 이제 혐오단어를 찾아내는 과정 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활동을 중심으로 네트워크의 활동이 바뀌어 가고 있음을 깨닫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의 표현 방법에서도 많은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출간하고 카드 놀이와 교구를 제작하고 이후 오디오북과 UCC를 제작하는 과정까지 다양한 콘텐츠의 변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 동일한 형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 이제는 조금 다른 말모이의 활동을 계획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고민에 기로에 있습니다.

결국 혐오단어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마치 검열단처럼 단어들을 찾아내야 하는 피로감에서 벗어나고자, 모든 것을 차별과 혐오라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하는 작업들을 조금은 느슨하게 해야 할 때 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모이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전진 중에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단어를 찾아 내는 과정보다는 지역의 언어, 장애인의 언어, 모든 언어를 받아들이는 방법으로서의 말모이로 진행 중입니다.

지역의 사투리를 우리의 언어로 인지하고 사람들과 함께 이를 대본으로 만들어 시각장애인들의 언어인 점자로 또는 낭독으로 읽어 시각장애인들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5개 그룹의 네트워크는 자생력을 갖기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각 네트워크간의 교류 보다는 경험에 있는 분들이 문화다양성 실행위원회로 자연스레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지속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말모이의 사업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말모이 기획단이 제작한 카드놀이와 키트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행사에 캠페인으로 참여하고, 지역의 언어인 제땅말(사투리)을 반영하고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반영한 지역의 스토리를 담은 대본집을 제작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본집은 시각장애인분들께서 이어 받아 낭독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말모이 기획단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혐오와 차별에 정면으로 부딪히기 보다는 혐오와 차별이 아닌 이해와 존중의 방식으로 다양성을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7. 금정문화재단

콘 텐 츠 명	금정 문화다양성 웹진 <다른생각>
콘텐츠 유형	출판,문학,언어
추진 개요	○ 추진기간: 2022. 4. ~ 12. ○ 추진장소: 금정구 일대 ○ 대 상: 금정구 내 문화다양성 기록에 관심 있는 여성주체 ○ 주요내용: 지역 여성 소수주체들의 기획회의 및 네트워크를 통해 주체적 문화 기록(기사, 칼럼, 인터뷰, 에세이 등) - 웹진 편집국 모집 및 선정 - 웹진 편집국 운영 (웹진 제작 및 편집) - 웹진 제작 위한 간담회 진행 - 웹진 최종 제작 및 공유

금정 문화다양성 웹진 <다른생각>은 금정구 내 문화다양성 기록에 관심 있는 여성주체들을 대상으로 하며, 네트워킹 활동을 진행하고 문화다양성 관점이 투영된 글들을 연 1회 웹진으로 기고하는 활동입니다. 네트워킹으로 통해 소수주체인 여성들의 문화권 공감대를 형성하고, 웹진 제작을 통해 지역 내 소수주체 여성들의 문화권 보장 및 아카이빙을 목표로 작년 202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활동을 기획하신 저희 재단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담당자 성유정 대리님은 금정구 문화다양성 이야기가 다른 콘텐츠보다 오래 남을 수 있고 축적될 수 있는 글로 남았으면 하셨고, 이를 전달할 방식으로 아카이빙 및 공유가 용이한 '웹진' 콘텐츠를 선택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더 생생한 기록과 퀄리티 있는 웹진 제작을 위해 2년 째 지역 출판사 '빨간집'과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생각>을 기획하던 성유정 대리님은 유명 지역 출판사 중 '기록' 활동 운영 경험이 있는 곳과 함께 하고 싶어 많은 서치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기록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 활동이 없어 고민하던 차에,

빨간집에서 진행한 동네 할머니들의 소소한 기록이 눈에 들었습니다. 평범한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정성스레 담은 기록이 너무나 인상 깊었고, 그 길로 '빨간집'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 협업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금정구 문화다양성을 의미 있는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저희의 <다른생각>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생각> 2021년 활동에서는 총 11분의 다름기록자 분들과 6월부터 12월까지 총 7회의 네트워킹 모임을 통해 인터뷰, 에세이, 칼럼 형식의 글을 총 22개 기고하였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 활동 중이지만 모두 다양한 연령대, 직업군을 가지신 다름기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 결혼, 비건, 이민 등 문화다양성 관련하여 자주 다뤄지는 대표적 여러 갈래와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간담회 후기글, 남기고 싶었던 개인의 이야기, 간담회에서 만난 이들 대상의 인터뷰를 풀어내 첫 <다른생각>을 펴냈습니다. 두 권으로 구성된 2021 <다른생각> 웹진은 2022년 9월 23일 기준 총 2000회의 조회수를 달성하며 문화다양성 아카이빙 자료 및 공유 콘텐츠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2021 <다른생각>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로 꾸려져 있습니다.

2021 <다른생각> 기고 글제: 다름기록자를 만나다 (인터뷰) / '우리 삶으로 온 코로나 19' 간담회 후기 / 코로나 시대 살아가기 - 김기석의 '그리움을 품고 산다는 것'을 읽고 / 통일문화카페를 소개합니다 (인터뷰) / 나에게로 온 코로나 (에세이) / 코로나19,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에세이) / 코로나19는 남편을 집으로 돌아오게 했다 (에세이) / 코로나가 선물한 100일의 동거 (에세이) / 코로나19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칼럼) / 결혼과 비혼: 가족이라는 이름의 나, 너, 우리 / 비건을 비긴하다 / 나유타 카페

대표 (인터뷰) / 도서관 나들이 (에세이) / 10개의 꽃송이 (에세이)
/ 시제時祭 가는 길 (에세이) / 너는 참 별[처럼 빛]나 (에세이) /
일본은 나쁜 나라.....(칼럼) / 무엇을 먹을 것인가? (칼럼)

현재 진행 중인 2022년 <다른생각>은 총 10분의 다름기록자
분들과 4월에 처음 만나 여전히 활동 중이며, 12월 웹진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사업 기간을 길게 잡아, 한 달에 최소
1번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더 깊이 있는 네트워킹을 이끌어내려
했으며, 네트워킹 내용도 사업 특성을 살려 '지역(금정구)',
'기록'에 좀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2021년 <다른생각>을
사업 담당자가 아닌 독자로서 처음 접했던 저는 <다른생각>의
힘을 알고 조금 더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웹진이란 PDF 파일로
아카이빙 후 시간 제약 없이 여러 인터넷 페이지에 배포될 수
있는 콘텐츠이며, 재단에서 활발하게 운영 중인 블로그의 유일한
문화다양성 콘텐츠이기에 해당 사업이 '금정구 문화다양성의
얼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담당자인 제가 금정구 문화다양성을 처음 접한 경로 또한
<다른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더 다양하게,
다름기록자들의 모습은 더욱 솔직하게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해당
사업 간담회 진행 및 편집을 도맡아주시는 빨간집의 윤주
선생님도 이에 동의하시며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다름기록자 분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주제가 발견되면, 기존 계획에서 유동적으로 수정하여 더욱 알찬
간담회를 즐기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다름기록자 분들
중에는 아이들의 놀이 교육(자연 체험, 문화예술체험 교육,
마을공동체 교육 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아, '아이, 어떻게
놀아야하는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 2시간
동안 실제 자신의 육아 교육 경험, 혹은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이야기하며 놀이에 대한 견해를 다양하게 공유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다름기록자 분들이 웹진에 기고할 이야기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글 외의 다양한 기록 콘텐츠로도 남기는 방식을 2022년 <다른생각>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름기록자 한 분은 곧 사라질 소중한 공간에 대해 글을 쓰며, 더욱 생생한 기록을 고민하던 중 어반스케쳐로 활동하시는 다름기록자 한 분과 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간에 대한 글과 공간을 표현한 어반스케치 그림이 함께 기고될 예정입니다. 인터뷰이와 이야기하는 순간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싶은 다름기록자 분은 인터뷰이 허가 하에 인터뷰를 녹음하여 소리 기록의 형식으로 웹진 콘텐츠로 올릴 예정입니다. 이처럼 소수주체로서 다름기록자 분들의 개성적인 이야기들이, 더 생생하고 어울리는 방식으로 아카이빙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해당 사업을 담당하며 걱정도 있었습니다. 다름기록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들이 공감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여성을 더 한정짓는 것이 아닐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며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더라도 그들이 살아온 환경과 가치관들은 너무 다양해 같은 문화다양성 주체 안에서도 다양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크게는 '겉으로 드러나는 다름', 더 들어가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알고보니 모두 다름'이 문화다양성의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다른생각>이 이를 확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나올 다채로울 2022 <다른생각>가 너무 기대됩니다.

8.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 추진위원회

콘 텐 츠 명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 추진위원회
콘텐츠 유형	공연 예술(축제, 행사)
추진 개요	○ 일 시: 2022. 8. 26.(금) ~ 9. 4.(일), 10일간 ○ 장 소: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창조문화활력센터 소극장 624 *온라인채널 : 유튜브, 네이버TV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 ○ 운영형태: 공식프로그램(초청작품) 오프라인 공연 및 온라인 상영, 특별기획프로그램 운영 ○ 주요내용: '여성'을 주제로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제시해주는 국내/외 공연예술작품 소개 (공식프로그램) 1. 국내/외 초청작 오프라인 공연 및 온라인(글로벌 온라인 스테이지) 상영 2. GWPAF 창작지원프로그램 <글로벌 아티스트> (특별기획프로그램) 1. 파워마이크, 그녀 2. 심포지:ON

<말하고,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다> 슬로건과 함께 2020년 첫 개최된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는 사회가 규정하는 정의로서의 '여성'이 아닌, 스스로 그 정체성을 찾아 나가고자 하는 많은 움직임들 속에서 공연예술이 품고 있는 적극적이고 밀도 있는 소통을 발판 삼아 '여성은 누구인가' '세계 여성들은 무엇을 향해 걸어 나가고 있는가'의 동시대성을 담고자 만들어진 축제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혐오, 배척, 폄하와 뒤섞여 '성평등'에 대한 뜨거운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 보다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는 세상을 위해 서로의 다른 시선들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가 세계 곳곳의 목소리와 움직임을 모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지혜를 나누는 무대를 펼치려합니다. '여성'을 주제로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제시해주는 국내/외 공연예술 작품과 기획프로그램(창작지원 프로그램, 심포지엄 등)을 선보입니다.

한국의 대표 국제도시인 부산은 여성인구밀집도시이자 여성인재, 여성예술가의 분포도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술을 통해 지역의 확장성을 모색하고 예술과 지역, 세계이슈와 문화를 잇는 공감과 희망의 장으로써의 축제가 되고자 합니다.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는 동시대 여성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과 과제를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힘과 의지를 모아내는 축제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인들이 모여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소통의 장이었던 '축제'의 형식을 통해 공감하고 이해하며 서로 연대하고 지지할 수 있는 공연예술축제가 되고자 합니다.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는 인간의 평등적 가치를 '예술'이라는 언어로 이야기 합니다. '여성'을 주제로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내어 동시대 축제의 가치를 증명하는 국제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세계여성운동의 목소리를 높였던 이들이 모두 예술가들이었던 만큼 '예술'의 가치를 통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젠더감수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인지하며, 여성예술가를 수동적인 뮤즈의 존재가 아닌 세상은 바꾸는 능동적 '창작크리에이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는 예술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 홈페이지 : www.gwf.kr

9. 경북문화재단

콘 텐 츠 명	경북, 하다 / 경북, 보다
콘텐츠 유형	시각예술 (전시, 영상)
추진 개요	○ 기 간: 2022. 7. 3. (일) ~ 9. 4. (일) 총 20회 ○ 장 소: 예천군 지보면 상월마을회관, 사운드파크 녹음실 ○ 운영형태: 강사 현장 방문 및 예술교육 진행 ○ 주요내용: < 경북, 하다> - 집성촌 대상 참여자 이야기를 가사로 만들어 노래 제작 < 경북, 보다> - 제작된 음원을 바탕으로 콘텐츠(뮤직비디오) 제작

○ 콘텐츠 소개 : 집성촌 대상 참여자 이야기를 가사로 만들어 노래 및 뮤직비디오 제작

노래부터 뮤직비디오까지 제작하는 과정은 [경북, 하다]와 [경북, 보다] 두 사업의 연계로 진행되었습니다.

[경북, 하다]는 일상의 이야기를 가사로 표현하고, 노래로 만들어 음원까지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며, [경북, 보다]는 만들어진 노래를 활용하여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집성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의 이야기를 가사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의 프로그램으로 음원과 뮤직비디오 제작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작년에 진행한 사업 경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2021년 경북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이웃사촌]을 통해 마을 노래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상북도의 한 마을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들의 삶의 이야기를 가사로 표현하였고, 노래로 만들어 마을 노래를 만들어보는 프로젝트였는데, 더 나아가 이 과정을 남기고자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실행 초기에는 어르신들이 낯을 가려 소극적으로 참여하셨던 것에 반하여 노래를 부르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때는 되려 “이렇게 하면 좋겠다.“, “빨리 진행하자.“ 등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여러 의견을 표출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뮤직비디오를 유튜브 등 여러 사람이 찾아볼 수 있는 플랫폼에 게시하여 집성촌 문화에 대하여 공유하였고, 생각지 못한 좋은 반응을 받게 되었습니다.

완성된 결과물을 어르신들께 보여드렸을 때는 굉장히 만족해 하셨다고 합니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성촌이라는 가족 문화와 이들의 언어를 담은 음원 그리고 뮤직비디오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올해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의 신규 사업으로 등록하였습니다.

○ 기획의도(사업 추진배경) : 서울의 31배에 이르는 넓은 면적에 비해 점차 감소하는 인구수를 기록하는 경상북도의 지방소멸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였습니다.

경북이 보유한 다양한 지역적 문화를 파악하고 알리기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과 주체 발굴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인구수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을 조명할 수 있는 주제를 올해의 사업 주제로 삼고자 하였고, 결정된 주제는 가족이었습니다.

경북지역의 가족은 1인 가구, 다문화가족, 조손가정, 대안 가족 등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부모와 자식으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가족, 혈연중심의 가족 형태를 벗어나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인식을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기획관점 :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핵가족에서 1인 가구, 비혈연가족 등 적은 가구원 수로 이루어지거나. 다양해진 가족의

형태는 앞으로 더 세분화되어 우리의 일상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올해의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의 주제는 가족으로 정하였고,
관련된 내용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가족에 대하여 생각을 하면 어머니, 아버지, 자식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일반적인 가족이라는 이미지로 떠오르실 것입니다.

사실혼, 공동체가족, 1인 가구, 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 가지지 않는 한 가족도 다양한 형태가
있음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경상북도청에서 조사한 경상북도 가족 형태 결과 그래프를
살펴보면, 가구원 수를 기반으로 조사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화된 자료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확인할 수는 없으며,
전통적인 가족 형태 외 대안 가족의 형태를 조사하고자하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혈연중심의 가족 형태를 벗어나 가족에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여
공유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 추진방향 :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함으로써 형태가 아닌
'사람'에 대한 이해와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고, 문화다양성 가치가
'나'에서 '가족' 그리고 '사회'로 확대·확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의 주제를 가족으로 설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경북지역의 각 지역별 워킹그룹 모집을 통해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실태 등을 조사연구 진행하였습니다.

워킹그룹이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참여할
대상은 집성촌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집성촌을 대상으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먼저 표현하고,
가사로 제작하면서 창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만들어진 노래를 참여자의 목소리로 불러 녹음을 통해 음원을 제작하였고, 완성된 음원을 활용하여 뮤직비디오라는 콘텐츠까지 제작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시 한 번 가족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보라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머니와 아버지, 자식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가족이라 생각할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집성촌도 가족의 한 종류이며, 참여자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어 공유하고자 하였습니다.

○ 운영과정 : 경북지역 내 문화예술분야 5년 이상의 활동자를 기준으로 가족의 사례를 조사해줄 워킹그룹을 모집하였습니다. 워킹그룹은 각 지역을 대표하여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조사하여 연구모임을 통해 조사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연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참여 주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대화를 통하여 참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의 이야기를 글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노래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았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져 온 경험을 담아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였습니다.

○ 결과물 :

* 꽃길. 디게 어려웠어, 하이깨네 해보이깨로 뮤직비디오 보여주기

<꽃길>과 <디게 어려웠어>는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소개하고, 현재에 변화된 환경과 만족하며 사는 '나'의 모습을 담은 노래입니다.

<하이깨네 해보이깨로>는 집성촌 어르신들이 주고 농사짓는 깨를 주제로, 깨 농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10. 구로문화재단

콘 텐 츠 명	몰두실험실 "어린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나요?"
콘텐츠 유형	공연예술 (축제, 퍼포먼스)
추진 개요	○ 일 시: 2022. 8. 27. (토) 14:00 ~ 18:00 ○ 장 소: 신도림역 1번출구 광장 ○ 운영형태: 대면 행사 ○ 주요내용 - 몰두실험실: 어린이 당사자성을 기반으로 자유로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커뮤니티형 실험소 운영 - 몰두실험실 전시회: 몰두실험실 운영을 바탕으로 제작·개발된 프로그램 전시회 운영

학교 안에서는 '어린이는 매우 중요한 존재', '주체성을 가진 시민'으로 인식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어린이에 대한 존중을 표현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제는 학교 안에서만 적용된다. 어린이를 시민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지역사회와 합의되지 않아 학교 밖에서는 '성인의 이전 단계', '미완성된 인간' 정도로 취급된다.

'몰두실험실'에서는 어린이를 향한 기존의 수동적 관점을 전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를 자기결정권과 책임을 동시에 가진 시민으로 바라보는 것이 전제되었다.

시민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권력창출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성숙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때문에 누군가는 '왜 어린이가 시민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몰두실험실에서는 모든 인간은 가치를 떠나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운영 철학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전개하였다.

본 운영철학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어린이는 시민으로 인식될 수 있을까? 또 어린이 스스로는 자신을 시민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프로그램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기본 전제로 하는 동시에 어린이 당사자와 어린이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어린이를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기존 관점의 틈을 만들기 위해 초기 기획단계에서 몇가지 운영철학을 설정하고 지속적인 아카이브를 통해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수평적 구조'

성별과 나이 등은 개인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가 아니다.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로 위, 아래를 나눌 수 없다. 몰두실험실의 참여자(어린이)와 크루(성인)는 나이와 학년에 관계없이 수평어를 사용한다. 이는 곧 가르치는 교사도 배우는 학생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자와 크루(성인)은 동등한 관계로 만나 서로가 불리고 싶은 이름으로 서로를 부른다. 크루(성인)는 참여자(어린이)가 실패해도 괜찮은 안전한 환경을 구성하고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람'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며 주변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행위를 반복하며 성장한다. 결과 값에 상관없이 매상황마다 판단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조절할 수 있다.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

대부분의 어린이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 이는

어린이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성인)이 자신의 축적된 경험을 통해 행동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몰두실험실에서는 성인의 경험을 어린이에게 투영하지 않는다. 다만 어린이 스스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테면 대용량 물품을 옮길 때 뚜껑을 닫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옮기다가 물품을 옷과 책상, 바닥에 잔뜩 쏟았다면 집에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기 전까지 끈적함과 쏟아진 물품에 대해 감당하면 그만이다. 성인은 “뚜껑을 닫고 옮기세요“, “뛰지마세요“ 등 행동을 제한하지 않는다.

몰두실험실

‘무엇을 할 때 가장 자유롭다고 느끼나요?’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본 프로젝트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운영철학을 기반으로 신청서 제출 내용에 따라 어린이를 평가하여 선발하지 않고 전년도 참여자가 선발위원이 되어 본 프로젝트의 참여자를 무작위로 추천한다. 선발된 인원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모여 운영철학을 기반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최소한의 약속을 정하고 개별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아카펠라 동아리 만들기’, ‘정수장치 만들기’, ‘최적의 베개 만들기’ 등 개인의 속도와 규모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몰두실험실 규칙>

1. 서로 존중하고 존댓말 사용하기
2. 소리지르지 않기
3. 서로의 이야기 잘 들어주기
4. 폭력 쓰지 않고 욕x
5. 물건 소중하게 다루기
6. 참여자(어린이) 간식 주기
7. 놀리지 않기
8. 쉬는시간은 15분 이상

9. 자리정리 스스로하기

10. 실험실 안에서 실험하기

총 15회차의 개별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참여자(어린이)는 몰두실험 노트를 통해 계획-실행-평가의 단계로 스스로 기록하며 크루(성인)는 참여자(어린이)의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며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조력자, 관찰자 역할을 수행한다.

몰두실험을 통해 제작·개발된 유무형의 작품은 몰두실험실 전시회 <어린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나요?>에 전시된다.

몰두실험실 전시회 <어린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나요?> 몰두실험실에서 결정과 책임을 통해 어린이 시민성을 참여자에게 이야기했다면 몰두실험실 전시회는 참여자의 개별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과정을 통해 어린이 시민성을 지역사회에 이야기한다.

전시의 전체적인 구성을 포함한 세부 운영 내용 또한 참여자가 직접 기획하며 이는 몰두실험실의 협동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된다.

<몰두실험실 관람 안내>

1. 밖이어도 꼭 마스크를 써주세요
2. 어린이에게 반말쓰지말아주세요
3. 만약 작품을 만지고 싶으면 허락을 받으세요
4. 어린이 작품을 평가하지 않기
5. 너무 많이 질문하지 않기
6. 질서지키고 기획자(어린이)말 잘듣기
7. 물통을 가지고 오시면 물을 드려요

몰두실험실 전시회는 크게 개별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된 작품전시와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전시장에 각 부스는 프로젝트 운영자인 참여자(어린이)가 간판을 비롯한 안내문 등 부스에 필요한 소품을 제작하고 운영방식 등을 정하여 직접 운영한다. 작품 예시) 레인보우 음료수-리올: 설탕의 농도와 색깔이 각각 다른 일곱가지의 설탕물을 농도가 진한 설탕물부터 옅은 순서로 쌓아 설탕물의 색이 섞이지 않고 커커이 쌓여있게 만든 음료수 체험프로그램 예시) 물고기를 살려라-다람, 땅콩: 쓰레기가 쌓여있는 바다에서 물고기가 아닌 쓰레기를 낚는 쓰레기 낚시 게임

몰두실험실 전시회에서는 '와, 정말 아이디어 좋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등의 탄성을 아주 흔하게 들을 수 있다. 몰두실험실의 어린이는 특별하지 않다. 그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제한하고 배제하지 않았을 뿐이다. 성인과 동일하게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결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전부다.

가위질을 해본 적 없는 어린이가 몰두실험실에서 톱질 1인자가 되었던 것처럼 몰두실험실에서는 어린이를 있는 그대로 지지한다.

11. 울산문화재단

콘 텐 츠 명	문화다양성 토크 콘서트
콘텐츠 유형	공연예술 (축제, 퍼포먼스)
추진 개요	○ 일 시: 2021. 10. 14. (목) 14:00 ~ 16:00 ○ 장 소: J아트홀(울산 중구 변영로 470) ○ 운영형태: 오프라인, 울산문화재단 유튜브 온라인 실시간 중계 병행 ○ 주요내용: 다양한 분야 이야기마당 및 공연단 초청 공연 (여는공연) 발달장애인 공연단 공연 (초청강의) 먹지 못하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되는 음식 <음식으로 이해하는 '차이'와 '차별'> (박상현 맛칼럼니스트) (간판프로젝트) 간판프로젝트 추진 성과 - 이야기마당(참여자 2명), 프로젝트 인터뷰 영상 상영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문화다양성 주간 캠페인 '7일의 기록 19개의 기억' 이야기마당(참여자 3인), 주간행사 영상 상영 (사람책발굴단) 무지개 사람책 발굴단 여성분야 이야기마당(참여자 2명) (라운드테이블) 이주민 2세 공연, 이주민의 울산살이 이야기마당(2명), 장애인부모 이야기마당(3명) (사람책발굴단) 무지개 사람책 발굴단 예술가모임 공연 및 이야기마당(참여자 2명)

문화다양성 토크콘서트는 2021년 한 해 동안 울산 지역에서 벌어진 문화다양성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2021년 울산 지역 문화다양성 사업은 문화다양성 주간 캠페인, 포럼, 무지개 사람책 발굴단, 라운드테이블, 문화다양성지기 양성, 간판프로젝트 등의 세부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토크콘서트에서는 각 세부 사업별 참여한 다양한 주체들을 초청하여 각 계층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야기 마당과 공연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울산 지역에서 벌어지는 문화다양성 사업에 대해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좀 더 많은 시민과 함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의미를

되짚어보고, 공감과 지지를 끌어내고자 기획하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로 많은 인원이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울산문화재단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병행하였다.

첫 무대는 발달장애인공연단 <다름이 모여 예술의 꽃을 피우는 차이>의 난타공연으로 시작되었다. 이 공연단은 한시적 문화예술교육을 넘어 발달장애인들이 예술로 자신의 전망과 꿈을 키울 수 있는 단체를 꿈꾸며 2013년 설립된 단체이다.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각기 다른 특성을 존중하며 서로가 같은 박자에 맞추어 북을 치고, 춤을 추고 하나의 공연을 만들어 내기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이 더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도 문화예술 공연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공연이었다.

이어지는 순서로 부산푸드필름페스타 프로그래머와 한아세안푸드스트리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상현 맛칼럼니스트를 초청하여 '먹지 못하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숨겨진 '차이'와 '차별'을 통해 사회적 편견을 깨는 내용이었다. 요즘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고 누구에게나 친근한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문화다양성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또한, 문화다양성이라는 것이 나와 동떨어진 소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가까이 있고 고민해볼 문제임을 시사하였다. 이어서 진행될 간판프로젝트 이야기마당과 연계된 주제이기도 하다.

간판프로젝트는 2020 울산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과정에서 우수 기획으로 선정되어 지역문화진흥원장상을 수상한 프로그램을 문화다양성과 연계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업이다.

간판에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명이 들어간 곳(식당)을 찾아가서 다른 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이 울산에서 정착한 이야기를 아카이빙하는 프로젝트이다.

서울/경기도, 충청/강원도, 전라도, 경상/제주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총 10개의 이야기를 담아내었다.

간판프로젝트에 참여한 최영자 우정동마을교사협의회 회장, 남미숙 꿈꾸는 고래도서관 관장과의 이야기마당을 통해 추진 과정의 이야기와 음식 문화에 관한 이야기,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에 대한 소감을 들을 수 있었다. 이후, 간판프로젝트 인터뷰 영상을 함께 본 뒤 다음 순서로 진행되었다.

2021년 5월에 문화다양성 오프라인 캠페인으로 진행된 '7일의 기록, 19개의 기억'은 문화다양성 주간 7일 동안 19개의 기관과 협력하여 필름 카메라에 차별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을 담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의 19개 범주를 보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의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일회용 필름 카메라에 담는 프로젝트였다. 프로젝트 참여기관 중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의 이겨레, 박영은 사회복지사와 최현숙 어르신을 모셔서 이야기마당을 진행하였다. 주제에 대한 열띤 토론 현장, 사진 촬영을 위한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분담, 젊은 사회복지사와 어르신 세대 간 소통 등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풀어내었다. 노인의 관점에서 일상에서 느끼는 차별과 소외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고, 세대 간 소통을 통한 이해와 공감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영상을

함께 보며 이야기마당을 마무리했다.

그다음으로 진행된 이야기마당은 무지개 사람책 발굴단 중 여성분야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되었다. 울산문화재단에서는 2020년 무지개다리 사업의 기본적인 기초조사가 취약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2021년 사업 2년차를 맞이하며 소수자 문화 주체 발굴을 위한 무지개 사람책 발굴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무지개 사람책 발굴단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추천된 장애인, 예술가, 이주민, 여성, 노동단체 영역 활동가 5인을 중심으로 지역 내 문화다양성 관련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문화다양성 사업 확장을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 프로그램이다. 이영란 여성가족개발원 연구원과 풀뿌리 소모임 율팸 구성원인 김명숙 나비문고 대표를 이야기꾼으로 초청해 여성 풀뿌리 소모임 발굴 과정, 소모임 활동내용 소개, 문화다양성과 여성 풀뿌리 모임의 연계 방안 등 여성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어서 이주민 2세들의 K-POP과 러시아 전통춤 공연 이후, 라운드테이블 참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이주민 관련 주제에 참여했던 울산남부경찰서 외사계 오주원 경위와 네팔커뮤니티 로켄 대표와 함께 외국인 이주민의 울산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사람의 국적을 뛰어넘는 우정 이야기와 외국 이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이주민의 삶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후 2020년 라운드테이블에서 인연을 맺은 장애인 부모이자 예술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이해경 장애인부모회 회장, 서경애 파란여름 대표, 이정희 다다름센터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예술을 좋아하는 아이를 위해 사회활동을 시작하게 된 엄마들의 이야기를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고민과 활동들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는, 무지개 사람책 발굴단 중 예술가분야 참여자의 공연과 이야기마당으로 진행되었다. 김이화 설치미술가와 이뤼라 행위예술가가 '〈Via〉: ~을 통하여, 경유하여'라는 융합 장르 작품을 공연하였다. 이후, 독립예술, 탈장르를 시도하는 융복합적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가를 찾아 함께 협업하게 된 이야기를 나누었다.

2021년 사업을 통해 발굴된 많은 문화 다양성 주체와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문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공연이 있는 토크 콘서트 형태를 빌어 시민들과 좀 더 쉽게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행사였다.

12. 완주문화재단

콘 텐 츠 명	북큐레이션
콘텐츠 유형	시각예술 (전시, 영상)
추진 개요	○ 일 시: 2022. 5. 21.(토) ~ 5. 27.(금) ○ 장 소: 완주내 공공도서관 및 민간서점 ○ 운영형태: 공공·민간·개인의 다양한 공간에서 문화다양성 주제별 특화된 북큐레이션 전시 진행 ○ 주요내용: Contents 공공도서관, 동네서점, 개인서재 등 사람-공간-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네트워크 구축 1. 노동, 인종, 생태, 동물 젠더 등 일상에서 깊게 고민하지 않았던 다양성을 주제로 북 큐레이션 진행 2. 단순 도서 전시를 벗어나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참여형 전시 콘텐츠 기획

부산 문화공유 네트워크
“다함께, 가까이, 늘”

문화공유 네트워크는 올 한 해 동안 부산문화재단이 부산시민과 예술가들이
“다함께” 참여하며, 서로 “가까이”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기 기대하며 마련한 행사입니다.

2022 아시아 문화다양성 국제포럼 <Contents>

발행일 2022. 9. 29.
기획 부산문화재단 문화공유팀 조형수, 김연진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48543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 051-744-7707 F. 051-744-7708
www.bscf.or.kr

2022
CULTURE PLATFORM
NETWORK

2022 Asia Cultural Diversity International Forum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RTS COUNCIL
KOREA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BUSAN CULTURAL FOUNDATION



BNK Busan Bank

